

## 암·정신질환 등 '공무상 재해' 인정 받는다

인사처,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내달부터 시행  
공무상 명백한 부상 심의 생략... 공무원연금공단 신속히 보상  
소청절차규정도 개정... 성비위 징계 소청 심사시 피해자 진술

공무원의 직업성 암과 정신질환 등이 내달부터 '공무 재해'로 추정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달부터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공상 추정제'란 공무원이 공무 수행 과정에서 유해하거나 위험한 환경에 상당 기간 노출돼 질병에 걸리는 경우 국가가 선제적으로 공무상 재해로 추정하는 제도로 인사처는 근골격계 질병,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직업성 암, 정신질환으로 정했다. 이와 함께 인사처는 공무상 명백한 부상은 기존 공무원 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공무원연금공단이 신속하게 결정하고 보상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에 따라 현행법 체포 과정에서 폭행당한 경찰공무원, 화재진압 중에 화상을 입은 소방공무원 등은 재해보상 심의 없

이 공무원연금공단이 직접 요양급여 요건을 심사, 결정함으로써 심의 기간이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성 비위로 징계 받은 공무원이 이의를 제기해 인사처 소청 심사가 열렸을 때 피해자의 진술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소청절차규정 개정안도 의결돼 내달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으로 인사처 소청심사위원회는 성 비위 사건의 피해자가 신청하는 경우 소청 심사에 피해자가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을 통해 의견을 들을 수 있게 됐다. 인사처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피해자에게 진술권을 부여하는 규정이 없었던 데다 목격자 진술도 드물어 기해자인 소청인 의견과 징계 처분권자인 소속 기관 의견만 듣고 심사를 진행해야 하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신우기자 leesu@jeonmae.co.kr



적막한 개성공단 북한이 오는 31일부터 내달 11일 사이에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예고한 가운데 30일 경기도 파주시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도라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개성공단 일대가 적막하다. 연합뉴스/임병사자

## "제2SG사태 막는다" 금감원-거래소 협업 주가조작 세력 철폐

금융감독원이 최근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를 계기로 불공정거래 조사역량 강화 방안을 관련해 기자 설명회를 열고 "조사 부문 전열을 재정비하고 심기일전해 주가조작 세력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현재 조사 3개 부서의 인력을 70명에서 95명으로 대폭 충원하고 특별조사팀과 정보수집전담반, 디지털조사대응반을 신설한다. 특별조사팀은 대규모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는 중대 불공정거래 사건 발생 시 총력 대응을 맡고 정보수집전담반은 은우프라인 활동을 통해 불공정거래 정보를 수집한다. 디지털조사대응반은 '가상자산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시행에 대비해 가상자산, 토큰증권(STO) 등 신종 디지털 자산에 대한 조사기법 등을 검토한다. 또 현재 기획조사, 자본시장조사, 특별조사국 체제를 조사 1~3국 체제로 전환하고

## 조사정보 공유시스템 본격 가동 내달 1일부터 투자설명회 단속 불공정거래 조사인력 대폭 확충

기획팀을 조사팀으로 전환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실제 조사 전담 인력을 현재 45명에서 69명으로 증원한다. 내달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와 '조사정보 공유 시스템'을 가동하고, 검찰·경찰과의 협력을 통해 불공정거래 사건에 신속 대응하는 등 협업도 강화한다. 금감원은 내달 1일부터 12월 말까지 특별단속반을 구성하고 투자설명회 현장 단속,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일제·인행 점검에 나선다. 내달 7일부터 12월 말까지 이른바 '리딩방' 관련 집중신고 기간도 운영한다. 금감원은 불법 공모도, 사모 전환사채(CB)·이상과열업종 관련 불공정거래 기획조사를 지속하고, 상장사 대주주의 내부 정보 이용 등 신규 기획조사도 발굴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사업무와 조직체계 등 필요한 모든 것을 재정비하고, 유관기관과의 상호 신뢰와 협력 하에 투자자 보호와 자본시장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박문수기자 pms5622@jeonmae.co.kr

## 서울시, 올해 첫 추경 3兆... 민생경제·저출산에 방점

올해보다 6.4%↑ 3조408억  
민생·사회연안·3대분야 투자  
지하철·버스 지원 등에 50조  
난자동결 시술비 전국 첫 지원

서울시가 30일 올해 3조 408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미 확정된 올해 예산 47조2천420억 원 대비 6.4% 증가했다. 시는 올해 본예산으로 역대 최대인 47조 원을 편성했지만,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高)' 현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민생경제의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산, 고령화 등 각종 사회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추경을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정부 물가안정 기조에 따른 요금 인상 억제에 따른 재정난 해소를 위해 지하철 운영기관인 서울교통공사에 기금 3천여억 원, 버스업체 등에 4천800억 원의 추가 예산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전국 최초로 기혼·미혼 여성을 위한 난자동결 시술비를 최대 200만 원 지급

하고 지원금 대폭 삭감으로 어려움을 겪는 TBSS와 서울시립대에는 추가 지원한다. 원안대로 통과하면 올해 총예산은 50조2천828억 원 규모로 늘어난다. 서울 예산이 50조 원을 넘은 것은 지난해 52조3천72억 원에 이어 두 번째다. 재원은 2022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지방세 수입, 국고보조금,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지방채로 마련했다. 시는 추경을 통해 시민과의 약속이행(6천750억 원)과 동행·매력·안전 3대 분야(6천422억 원)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1천192억 원을 투입한다. 취약계층 안전망 강화 399억 원, 소상공인 지원 396억 원, 로봇·관광 등 다양한 분야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 397억 원을 투자한다.

세부적으로 보면 하반기 예정된 대중교통 요금 인상으로 인한 자립준비청년의 통학·출퇴근 교통비를 지원한다. 기존 지원 대상인 한부모가족 중·고등학생 자녀와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 중·고생의 교통비는 요금 인상분만큼 지원 단가를 월 2만8천800원에서 4만 원으로 높인다. 청년 전월세보증보험료는 최근 전세 사기와 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11억 원을 투입해 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대상자 수를 확대한다. 서울교통공사에는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에서 3천500억 원을 추가 지원해 재정안정화를 도모한다. 서울형 저출생 대책 추진에 597억 원을 추가 편성했다. 임신과 출산을 희망하는 기혼·미혼여성들을 위해 난자 동결 시술비를 최대 200만 원 지원하는 제도

를 전국 최초로 도입한다. 서울시 재원(100만 원)과 손해보험협회의 후원금(100만 원)으로 마련된다. 또 105억 원을 투입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확대한다. 소득 기준과 시술별 횟수 제한을 폐지해 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난임부부는 최대 22회 지원받는다. 일상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활력도시 서울 구현에 161억 원을 투입한다. ▲청소년·청년 아침밥 지원(3억 원) ▲청소년 마음건강(6억 원) ▲서울국제정원박람회 개최(13억 원) ▲집수교 전편 보행화(10억 원) 등이 새로 추진된다. 동행·매력·안전특별시 3대 분야는 보강 투자해 시장 핵심가치 실현을 가속한다. 동행특별시 분야에 2천478억 원을 추가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 문화·관광 활성화로 지속가능한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매력특별시 분야에 2천525억 원을 투입한다. 안전특별시 분야에서는 노후 인프라 교체, 재난 대응기반 강화 등 안전한 환경 조성에 1천439억 원을 편성했다. 임병희기자 lhmh@jeonmae.co.kr

국민건강보험  
지속가능하고 의료비 걱정 없는 건강보험  
문의.1577-1000

고맙다! 양양  
제45회 풍농 풍어의 기원 및 향토민속등 전통문화제  
**양양문화제**  
일시: 2023년 6월 8일(목) ~ 6월 10일(토)  
장소: 양양종합운동장, 부대행사장

구분	일자	행사종목
제례행사	8일	
식전행사	8일	시가행진(휘터대, 양주방아사, 대모수군만호행차, 카리리, 비에로동), 양양만세운동재현행사
개막식	8일	
식후행사	8일	군민노래자랑, 불꽃놀이
민속놀이공연 (강연) 및 각종 시범	9일	청소년유도시범, 읍·면농악경연대회원형마당잔치, 전통혼례 민속시연(수동골상여소리), 민속시연(상북골농요)
민속놀이(경기) 및 민속체험행사	9일~10일	재기차기북춤, 전통놀이(남)불놀이(여), 정기대회, 평씨름, 한국기, 태권도, 씨름, 줄다리기, 민속체험행사(재기차기, 투호, 율놀이(남, 여), 한궁, 팔씨름, 널뛰기, 집단얼리(연지기))
체육행사	8일~9일	바둑대회, 원산백일장 인기가수 초청공연
체육행사	10일	체육행사
부대행사	8일~10일	농·특산물전시, 향토음식문화관운영, 관아음향사재현, 국당공연, 민속탈공연, 국유림·나들길·농촌체험, 아이돌봄, 여성새로일하기, 양양군가족센터운영, 양양꽃시골전시관운영, 양양10경사건전시, 서예·한국화, 수채화등작품전시, 꽃누르미, 한지공예, 기구리용전시, 정선건강증진센터홍보, 송원(마름), 원터, 수지침봉사자지원봉사센터운영및홍보, 양양지역자활센터홍보, 페이스페인팅체험, 양양군보건소홍보및체험, 율리수공예, 이나비다정다, 심폐소생술(CPR)및응급처치체험, 아이두어우선공예운영, 농지은행홍보, 분재전시, 지역동아리경연대회(6.8), 보은 지형사산전및체험
10. 폐막식	10일	

주최 양양문화재단위원회 주관 양양문화원 양양군체육회 후원 양양군 양양군의회

단신브리핑

'환경교육주간' 경기상상캠퍼스서 개최

경기도는 내달 1일부터 3일까지 경기상상캠퍼스에서 '환경교육주간' 행사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행사는 ▲기념식 ▲환경교육 활성화 위한 워크숍 ▲환경 제도에 대한 설명회 등 환경정책 한마당 ▲지속가능발전 북 콘서트 ▲폐자원 업사이클 체험, 교육·전시·홍보부스 ▲버룩시장(플리마켓) 등으로 진행된다.

특히 올해는 경기 RE100 비전 선언에 동참하고자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구매, 자가용 없는 대중교통+서버리스 저탄소 교통수단 이용, 일회용품 없는 제로 웨이스트 정책 등 반영한 저탄소 친환경 행사로 진행한다.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충북도는 올해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도는 사업을 통해 여성가족부와 함께 자녀양육, 학업부담, 취업 준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부모의 양육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신청대상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청소년(만 24세 이하)이면서 기존 중위소득이 60% 이하인 청소년부모 가구로 월 20만 원의 아동양육비가 지원된다.

희망자는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증명(또는 사실증명서), 통장사본 등을 준비해 거주지 관할 읍면 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청주/양철기기자 ckyang5@jeonmae.co.kr

우수 농수산식품 품평·수출상담회

전남도는 내달 1일 나주 다목적체육관에서 '2023년 상반기 우수상품 품평·상담회 및 수출상담회'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수출상담회는 (재)전남장주경제혁신센터, 광주전남중소벤처기업청, (재)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광주전남지원단 등 수출 유관기관이 공동 주관해 식품 수출 기업 지원사업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외 구매자 초청을 통한 수출상담회와 해외 구매자의 한국지사 관계자 및 국내 대형 유통기업 MD를 초청한 제품 품평회도 함께 열린다.

신원근 도 국제협력관은 "이번 행사가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길원 대기자 sgyw3131@jeonmae.co.kr

김태흠 지사, 천안 방문...도민과 대화 정책 현장 방문 진행 안서동 대학로·모빌리티 국가산단 조성·교통 기반 확충 등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국립 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을 약속했다.

30일 도에 따르면 이날 김 지사는 민선 8기 2년차 시군 방문 8번째 일정으로 천안시를 방문해 인문인 간담회, 도민과의 대화, 정책 현장 방문 등을 차례로 진행했다.

도민과의 대화는 천안시청 봉서홀에서 박상돈 시장과 시민 등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립 치의학연구원 유

치 ▲안서동 대학로 조성 ▲교통 기반(인프라) 확충 ▲모빌리티(이동 수단) 국가산단 조성 등을 약속했다.

도는 현재 천안아산 연구개발(R&D) 집적지구 내 국립 치의학연구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국립 치의학연구원의 주요 기능은 ▲정부 구강 정책 연계 산·학·병·연 협업 체계 구축 ▲종합 연구개발 지원 ▲요소·원천기술 기반 사업화 연계 등이다.

김 지사는 "국립 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은 대통령 공약으로 국민과 약속한 사안이기도 공모가 아닌 선정으로 진행해야 한다"며 "연구원이 천안에 설립될 수 있도록 대통령께 지속 건의하고 보건복지부와 핵심 연력 체계를 구축하는 등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서동 대학로는 오는 2026년까지 천안시 동남구 안서동 일원에 84억 원을 투입해 조성한다.

교통 기반 확충으로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C노선(GTX-C) 천안아산 연장 ▲지하철 1호선 전철 독립기관관 연장 ▲하이패스 나들목(IC) 신설 ▲아산

만 서클형(평택-아산-천안) 순환철도 신설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 ▲엠(M)버스 노선 신설 등을 제시했다.

천안 미래모빌리티 국가산단은 서북구 성환읍 신방리 일원 416만 9000㎡의 부지에 2027년부터 1조 60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조성하며 추진 방향은 ▲세계적인 대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산업시설용지 70% 이상 배치 ▲대기업 연계 단지 및 배후 주거·상업 지역 조성 등으로 설정했다.

한편 김 지사가 지난해 진행한 첫 시군 방문에서 천안시민들은 23건의 사업 등을 건의했으며 도는 이 중 8건을 완료

하고, 10건은 추진 중이며, 3건은 장기 검토, 2건은 수용 곤란 과제로 넘겼다.

정책 현장 방문은 천안역사 증개축과 천안제일고 부지 공간재구조화대상지 확인을 위해 천안 타운홀 전망대에서 진행됐다.

천안역사 증개축은 올해 하반기 타당성 조사와 건축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하반기 중앙투자심사 통과와 공사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천안제일고 부지 공간 재구조화는 교육부가 총 200개교를 대상으로 오는 2027년까지 공모를 통해 선정할 계획이다.

충남취재본부/한상규기자



경기체육 활성화 맞손토크

김동연 경기도지사, 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 경기도의원 및 관계자 등이 30일 오전 경기도체육회에서 열린 경기체육 활성화 맞손토크에서 토크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세종시, 기업 투자 전 과정 밀착지원한다

세종시는 3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12개 관련기관·부서와 함께 기업 투자지원협의체인 '일사천리 투자지원단'을 발표했다.

이날 발족식은 이준배 경제부시장 주재로 지원단 운영계획 설명, 홍보영상 상영, 투자환경 및 시책 소개 순으로 진행됐다.

시는 투자지원단을 통해 기업의 다양한 요구사항, 신규 투자문의

원에 힘을 모으게 된다.

특히 지역에 투자를 결정한 기업 을 먼저 방문해 요구사항과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관련기관 실무회의를 통해 기업 투자의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할 예정이다.

또 사안별 진행 및 협조 사항을 기관·부서 간 사전에 상호 공유해 소통을 강화하고, 복합 애로사항을 집중 논의하는 등 문제해결에 중점

'일사천리 투자지원단' 발족...요구사항·투자문의 등 대응 투자 결정·입지 선정·공장 가동 등 행정서비스 통합지원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며 투자 과정에서의 인허가 처리기간, 금융지원 여부, 인력수급 등 애로사항으로 인한 투자 지연이나 철회를 예방한다.

투자지원단은 기업의 투자 결정부터 입지 선정, 공장 가동까지 모든 행정서비스를 통합·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되며 앞으로 행정청, 한국도지주태공사(LH), 한국전력공사, 테크노파크 등 기관 4곳과 시

을 두고 기업 투자지원 업무를 처리해 나갈 예정이다.

시는 투자지원단이 자 지원 업무와 연계해 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고 각종 애로 규제를 발굴, 개선을 건의하는 창구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준배 경제부시장은 "앞으로 기업들이 원활한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유양준기자 yyou@jeonmae.co.kr

부산시, 전국 최초 장애인 전용 '나래버스' 운영

6월부터 화·수요일 운행 해운대 등 시내 관광노선

부산시가 장애인의 관광 이동권 보장과 장애인화도시 부산 실현에 나선다.

시는 전국 최초 장애인 전용 시티투어 버스를 내달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그간 이동약자용 택시에 해당하는 두리발 187대와 장애인 콜택시 저비용 1000대 등을 운영해 왔지만 이동약자

를 위한 관광용 여행버스는 운영하지 않았다.

이에 박형준 시장은 장애인 복지 강화를 통한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민선8기 시장공약으로 내걸었으며 시는 올해 본예산 5천만 원을 편성했다.

일명 나래버스로 불리는 버스의 공식 명칭은 '부산 장애인 시티투어, 나래버스'로 사업 운영은 (사)부산장애인총연합회가 보조사업자로 지정돼 맡는다.

시는 31일 부산역 유리아시플랫폼에서 '장애인 시티투어버스 개통식'을 개최할 계획이다.

나래버스는 일정 수 이상의 단체 인원을 예약제로 태워 부산역을 출발해 광안리, 해운대 등 시내 주요 관광노선을 주 2일 운행한다.

한편 나래버스는 오는 8월 7일부터 11일까지 벡스코에서 개최되는 2023 부산세계장애인대회 기간에는 장애인들의 이동을 위해 활용될 계획이다.

부산/이재철기자 oxon99@jeonmae.co.kr

Advertisement for AMERITRUST CORPORATION 2023년 긴급 임시주주총회 개최 공고. Includes details about the meeting on May 24th, agenda items like shareholder election and dividend distribution, and contact information for the company secretary.

Table for '토지조서' (Land Register) listing various land parcels (정서리) with columns for area, location, owner, and status. Includes a summary of 27 parcels and a note about the document's validity.

Advertisement for '보상계획 공고' (Compensation Plan Announcement) for '하동군수' (Ha-dong County Mayor) on May 26th. Lists compensation details for land acquisition and other matters.

# 선관위 '자녀채용 의혹' 눈덩이... '10명 이상'에 수사의뢰 가능성

국민권익위도 전수조사 방침 천명  
감사 결과 따라 지휘부 수사의뢰도  
기존 6명 의혹에 '5명+' 추가될 듯  
노태약 선관위원장 사퇴 압박도 계속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선관위 내부 전수조사 중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 신우용 제주 상임위원 등 기존에 확인된 사례 외에 의심 사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특혜 채용 의혹 대상자는 10명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는 30일 노태약 선관위원장 주재로 긴급 위원회를 열고 특혜 채용 등 최근 불거진 의혹과 관련한 개혁방안을 논의하고 그 결과를 31일 발표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박 총장과 송 차장 등의 자녀 채용 의혹에 대한 특별감사위원회 감사 결과에 따라 수사를 의뢰하는 방안도 내부 검토 중이다.

이미 시민단체가 박 총장과 송 차장 자녀 채용 의혹을 수사기관에 고발한 데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고발이나 수사의뢰를 검토하고 있다.

선관위는 아울러 국민권익위원회의 전수조사를 받기로 했다. 현재 실무 차원에서 조사 범위와 방식 등을 논의 중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감사원 감사는 법에 근거가 부족하지만, 권익위 조사는 부패방지 관련 조항에 따라 채용 의혹 건에 한정해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밝혀진 자녀 특혜 채용 의혹 사례는 박 총장과 송 차장, 김세환 전 사무총장, 신 상임위원, 윤재현 전 세종 선관위 상임위원, 김정규 경남 선관위 총무과장 등 6건이다.

여기에 선관위의 5급 이상 직원 전수조사 중 4~5급 직원 자녀의 경력 채용 사례가 추가로 5건 이상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직원 11명의 자녀가 경력 채용됐다는 것인데, 전수조사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라 이 숫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직원 자녀 채용 과정에서의 '미심쩍은 부분'도 계속 나오는 중이다.

경남 선관위의 김 총무과장 자녀 경력 채용 면접 당시에는 지원자들이 면접관 심사표에 직접 인적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원자가 심사표에 적힌 심사항목 등을 미리 확인할 수 있던 것이다.

공고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추천 등을 받아 진행되는 '비다수인 대상 채용'으로 선관위에 들어간 송 차장 자녀를 둘러싸고도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선관위 경력 채용은 2018년 26명에서 작년 75명으로 4년 새 3배 가까이 늘어났다. 반면 공개채용은 같은 기간 110명에서 77명으로 줄었다.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 등 대형 선거를 앞두고 육아휴직 등 휴직자가 늘면서 인원이 부족해 경력 채용이 불가피했다는 게 선관위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런 경력 채용이 간부 자녀가 지방 공무원에서 중앙 공무원인 선관위로



노태약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30일 오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고위직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 관련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긴급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 김세환 전 사무총장 등 선관위 전·현직 간부 6명의 자녀는 경력 직원 채용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윤동진기자

이동하는 '꼼수' 통로로 활용됐다는 의혹 제기가 잇따르고 있어, 선관위는 채용 방식 개선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노 위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여당의 파

상공세도 계속되고 있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지금 국민은 양치기 소년이 되어버린 선관위의 말과 행동, 그 어느 것도 신뢰할

수 없다고 한다"며 "내일 입장 발표는 오직 노 위원장의 처절한 대국민 사과와 사퇴 입장 표명이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 15분만에 '싼 대출'로 갈아탄다...실시간 조건 조회부터 계약까지

31일 출시되는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스마트폰에 앱만 설치하면 누구나 나시도해볼 수 있다.

영업점을 방문할 필요 없이 클릭 몇번이면 기존 대출 원리금부터 중도상환 수수료까지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우선 개인 신용대출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연내 주택담보대출로 확대 개편된다.

3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앱 설치부터 대출 갈아타기 결과 확인까지 서비스 이용 시간은 15분 남짓이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애플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대한대출 서비스 제공 앱을 설치하는 것이다.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한 앱은 크게 대출 비교 플랫폼 앱(네이버페이, 뱅크샐러드, 카카오페이, 토스 등)과 주요 금융회사 앱(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등) 등 2가지가 있다.

여러 금융회사의 상품을 한꺼번에 비

교하려면 대출 비교 플랫폼 앱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앱을 실행한 뒤 '대한대출 서비스' 항목을 선택하고 본인 인증을 완료하면 기존에 받은 대출 금리, 갚아야 할 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때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가입하

### 영업점 방문 필요 없이 앱만 설치...기존 대출금도 자동 상환 "이자 경감 수준이 중도상환 수수료보다 더 크지 따져봐야"

지 않은 경우 자동으로 가입 절차로 이동하게 된다. 기존 대출 정보를 불러오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절차가 끝나면 소득, 직장, 자산 정보를 입력하는 순서다. 조건을 정확하게 입력할수록 새로 받을 수 있는 대출 조건도 정확히 할 수 있다.

정보 입력을 마치면 갈아탈 수 있는

대출 상품 목록과 조건들이 뜬다. 각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금리와 한도가 다르기 때문에 정렬 기능을 통해 가장 유리한 조건의 상품을 비교·선택할 수 있다.

갈아탈 대출 상품을 정했다면 내가 적용받을 수 있는 우대금리까지 확인해

야한다. 급여 이체, 카드 실적 등 우대 조건을 선택 또는 해제해보며 최종 금리 수준을 확인한다.

그런 다음 기존 대출을 갚을 때 내야 하는 중도상환수료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대출 유지 기간에 따라 수수료 부담

이 대출 갈아타기를 통해 아낀 이자보다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모든 정보를 감안해 새 대출을 최종 선택하면 이동하려는 금융회사 앱을 통해 대출 계약이 진행된다.

기존 대출금을 갚는 문제도 신경 쓸 필요 없다. 금융결제원 시스템을 통해 자동 상환되는 구조다.

소비자가 기존 대출이 완전히 갚아진 사실과 새 대출을 받은 결과를 모두 확인하면 갈아타기 절차가 끝난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플랫폼 이용 시 앱 설치부터 마이데이터 가입과 계좌 개설(대출금 받기 위한 용도) 등을 모두 포함해 대략 15분 이내 갈아타기가 완료된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 플랫폼 사업자에게 내야 할 명시적인 수수료는 따로 없다. 대출 계약 실행 시 해당 금융회사가 플랫폼 사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구조다.

박문수기자 pms5622@jeonmae.co.kr

## 경기도형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평가 체계 구축

도, 내년부터 평가 실시  
서비스 품질 향상 기대

경기도와 경기복지재단이 내년부터 도내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실태, 인력 관리 등을 평가해 시설들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유도한다고 30일 밝혔다.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지역 사회 재활 촉진을 위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은 사회 복지법상 사회복지시설 평가 대상이지만 표준화된 평가 기준과 지표가 없어 그간 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도는 경기복지재단과 함께 2020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실태조사를 통해 장애인 주간보호 서비스 표준화를 위한 평가 체계 도입을 추진해 2021년 평가 체계 구축 및 지표 개발, 2022년 시범 평가를 거쳐 내년부터 평가를 진행하게 됐다.

평가 내용은 ▲시설 및 운영 관리 ▲인적자원 관리 ▲재정 ▲프로그램 및 서비스 ▲이용자 관리 ▲지역자원 연계 등이다.

평가 대상은 도내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150개소 중 설치된 지 3년 이상인 140개소다.

특히 주간보호시설 첫 평가를 앞두고 평가 기간을 최소화하고 평가 목적도 시설 운영 현황 위주로 진행해 향후 주간보호 서비스 품질 향상과 표준화 등 주간보호시설 운영 방향 모색에 무게를 두기로 했다.

아울러 지난 25일에는 도와 경기복지재단이 평가 지표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 이후에는 권역별 시설 컨설팅을 실시해 평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충분한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내년 평가 결과 우수 시설에는 여러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김영희 도 장애인복지과장은 "이번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평가를 통해 장애인 주간보호서비스의 표준 체계를 마련하고 주간보호시설 이용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창간 26주년을 축하합니다**

더 크게 들고,  
더 많이 뛰겠습니다.

시민을 위한 감동의정!

**제9대 동두천시의회**

Dongducheon City Council

[11317] 경기도 동두천시 방죽로 23 / TEL 031)860-2516 / FAX 031)860-2661

### 박광은 “정의당 협력 중요한데” 배진교 “민주당과 함께 할 것”

제1·2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정의당 원내대표가 30일 만나 1년 남짓 남은 21대 국회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이날 회동은 정의당 배진교 신임 원내대표가 취임 인사차 민주당 박광은 원내대표를 예방하면서 이뤄졌다.

우선 박 원내대표는 배 원내대표에게 “국회의원은 한 번(조선)인데 원내대표는 세 번째니, 직업이 원내대표 같다”며 “그만큼 역량과 추진력이 좋고 다른 당과의 관계에서도 유연하다는 것”이라고 덕담했다.

이어 “양곡관리법이나 간호법 같은

서 정의당도 저를 비롯한 많은 의원이 민주당과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다.”

배 원내대표는 이른바 ‘민생 추경(추가경정예산안)’과 전세사기특별법 후속 입법을 함께 추진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반쪽짜리 특별법이라는 비판을 감수하면서도 전세사기특별법에 저희가 참여했는데 후속 입법에 중요한 것 같다”며 “국회 내 논의의 기구를 구성해서 추가 입법 과정을 밟자”고 했다. 배 원내대표는 “포괄입법 제 폐지 등 지난 대선 당시 여야 공통

### 차 “남은 1년 민생 필수법안 통과시키자” 황 “추경·전세사기특별법 보완 추진하자”

은 중요한 법안이 (대통령) 거부권에 막혀서 사실상 어려워진 상황이라 염려가 크다”며 “그 과정에서도 민주당은 정의당과 긴밀히 협력할 수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 간 협치도 필요하지만, 민주당과 정의당의 협력에 매우 중요한 시기라는 점을 더 절실히 느끼게 된다”며 “남은 1년간 민생에 꼭 필요한 법안을 정의당과 협력해서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배 원내대표는 “이럴 때일수록 야당이 야당답게 정책적 논의를 잘 이끌어가야 한다”며 “그런 측면에

공약 가운데 7개 정도는 추진할 수 있다”며 “3당 협의가 어렵다면 민주당과 정의당만이라도 정책위 차원에서 협의해 입법하자”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 배 원내대표는 예방 기자회견과 만나 “3당 간 공통 공약과 관련해 정책협의기구를 구성해서 빨리 입법할 수 있는 것들을 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또 “헌법 불일치(불합치)로 국회가 입법해야 하는 과제들이 낙태죄를 비롯해 40여개가 있다”며 “이 법안들을 정리해서 조속히 개정하는 것이 아기를 낳았다”고 덧붙였다.

박문수기자 pms5622@jeonmae.co.kr

## 윤리특위, 김남국 징계안 상정... “자문위, 한달 내 의견달라”

與 “10일+α” 野 “한달은 줘야” 이견  
변재일 “전체회의 김남국 출석시킬 것”  
與 “민주, 김남국 징계로 속죄해야”  
野 박용진 “자진사퇴가 정치 발전 도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3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거역의 가상자산 보유·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윤리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김 의원의 징계 안건을 상정했다. 해당 안건은 특위 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회부됐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8일에, 민주당은 같은 달 17일에 김 의원 징계안을 각각 제출했다. 윤리심사자문위 활동 기간은 최장 60일이다.

여야는 이날 회의에서 김 의원의 ‘코인 논란’에 대한 국민적 관심 등을 고려해 조속히 징계 관련 결론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국회의원 윤리강령 실천 규범을 현저히 위반한 김 의원 징계 절차가 빠르게 진행돼야 한다”며 “집중적인 활동으로 (이른) 의견 제출이 되도록 자문위의 (활동) 기간을 최소화해 설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윤리 김 의원에게 제기된 의혹을 빠짐없이 심사하는 한편, 김 의원이 다음 전체회의에 출석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 간사인 민주당 송기현 의원 역시 “윤리특위를 통해 (김 의원의 징계) 빠르게 결정되기를 희망한다”며 “(징계 관련) 안건을 잘 정리해 신속한 결정이 나오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무소속 김남국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 논의를 위해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윤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변재일 위원장이 의사를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이정훈기자

이에 민주당 소속 변재일 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윤리심사자문위의 (활동 기간을) 한 달로 하되, 국민 관심이 큰 만큼 긴급적 이틀 시간 내 의견을 달라는 내용을 담아 (안건 회부 관련 서류를) 낼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전체회의가 비공개로 전환된 이후 윤리심사자문위 활동 기간을 놓고 여야 간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은 활동 기간을 10일로 하되 부족하면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야당

은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한 달간의 활동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회의에서는 김 의원의 윤리특위 회의 출석 여부도 논의됐다.

변 위원장은 기자들에게 “김 의원이 윤리심사자문위에 출석할 의무는 없다”며 “특위 전체회의에 출석시켜 소명을 들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여야에서는 김 의원의 ‘코인 거래’ 논란을 두고 이날도 비난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김예림 대변인은 논평에서 윤

리특위가 김 의원의 징계안을 상정한 데 대해 “오늘은 김 의원과 민주당의 ‘운명의 날’이자 그들의 민낯을 재확인하는 날”이라며 “민주당은 김 의원 징계 처리로 국민에게 속죄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김 의원이 자진사퇴해야 하는가’라는 물음에 “자진해 사퇴하는 게 민주당과 본인, 한국 정치 발전을 위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박문수기자 pms5622@jeonmae.co.kr

## 與 “민노총 불법 뿌리뽑을 때... 野 파업조장 입법 중단해야”

“문정부 불법집회통계없애... 바로잡아야”  
도심집회·노란봉투법 직회부여충공세

국민의힘은 민주노총이 31일 퇴근 시간대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것과 관련, 이를 불법 집회로 규정하며 엄정 대응 방침을 강조했다.

동시에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분회의 직회부 요구안 의결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있다”며 파상공세를 펼쳤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노총의 잇단 도심 집회 개최를 두고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

라며 “경찰은 이번 기회에 민주노총의 불법 행위를 뿌리 뽑고 공권력이 시민의 자유를 지키는 힘이라는 것을 보여 줘야 한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아울러 지난 정부가 민주노총을 옹호하기 위해 불법 집회시위 통계를 아예 없앤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며 “하루속히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국회 행정안전위 간사인 이만희 의원도 “2018년부터 문재인 전 정권에서 불법 폭력 시위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제한 규정이 삭제된 이후 경찰도 불법단체 선정을 하고 있지 않다는 해명을 하고 있지만 참으로 비상식적이고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노란봉투법에 대해 “민주노총에 날개를 달아주겠다는 법”, “파업 조장법”, “수시로 파업해서 국민을 갑작스럽게 놀라게 하는 ‘노란봉투법’”이라며 비난을 쏟아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겨냥해 “이렇게 문제 많은 노란봉투법을 이번에 처리하려는 이유는 뭘일 것”이라며 “대통령이 재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도록 해서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을 지우고, 민주당은 노동계 표를 얻겠다는 심산”이라고 말했다.

당 소속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헌법재판소를 찾아 노란봉투법 직회부 요구안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박창복기자 parkch@jeonmae.co.kr

## 與 시민단체특위 “회계부정·과담유포·폭력조장 ‘3대 민폐’ 근절”

회계부실 영세 NGO엔 회계사 지원  
‘5.18·환경과담’ 유포 단체도 조사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특위)는 30일 회계 부정·과담 유포·폭력 조장을 시민사회 ‘3대 민폐’로 규정하고 이를 근절하기로 했다.

하태경 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특위 첫 회의에서 이렇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우선 3대 민폐에 해당하는 시민단체들에 대한 보고를 받고 향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하 위원장은 “시민사회를 탄압하기 위해 (특위) 만든 게 아니다. 오히려 (시민단체들을) 지원하는 내용이 많이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회계 부정과 회계부실은 나눠 볼 것”이라며 “거대 NGO의 경우에는 회계 부정이나 횡령이 있지만, 영세 NGO의 회계부실은 오히려 국비로 회계사를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이 30일 국회에서 특위 회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성훈기자

영세 NGO에 대한 회계사 지원 기준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와 상의한 다음에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위는 가짜뉴스·과담 유포에 대해서는 ‘환경 과담’과 ‘5.18 민주화 운동 과담’을 살펴보기로 했다.

하 위원장은 “과거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전자과 과담, 천성산 도룡봉 과담, 기장 해수 담수화 과담 등이

있었는데 이런 사례들을 조사해 상습적으로 과담을 유포하는 환경 단체들을 국민에게 알릴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5.18을 깎아내리기 위해 (5.18 운동이) 북한과 관련했다는 등의 과담을 정리해 그런 NGO들이 정부지원금을 수령하지 못하게 하겠다”고도 했다.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전국매일신문 창간 26주년을 축하합니다

2023 NBF

전국 150종의 수제맥주가 노원에 옵니다

# 노원 수제맥주 축제

6.2(금) 15:00 ~ 22:00 ~ 6.3(토) 13:00 ~ 22:00

화랑대 철도공원 (노원구 화랑로 608)

- 전국 유명 수제맥주 브루어리
- 다양한 푸드트럭 & 공연
- 노원 대표 브랜드 마켓

노원 수제맥주축제 추진위원회

# 삼성전자, 갤럭시·노트북 '자가 수리' 국내 도입

### “일부 모델·부품서 점진적 확대 수리 메뉴얼 홈페이지서 확인”

삼성전자가 국내에서도 스마트폰과 노트북 등 일부 제품에서 자가 수리를 국내에 도입했다고 30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스마트폰과 노트북, TV 소비자가 자신의 제품을 직접 수리할 수 있는 자가 수리 프로그램을 이날부터 실시했다.

이에 따라 국내 소비자도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방문해 제품을 수리하는 것 외에 온라인에서 필요한 부품을 구입해 직접 수리할 수 있게 됐다.

자가 수리가 가능한 제품은 일부

모델과 한정된 부품을 대상으로 시작된 뒤 향후 순차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자가 수리 우선 적용 모델과 부품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삼성전자는 설명했다.

우선 갤럭시 모바일 제품과 TV 일부 모델 자가 수리가 가능해졌다. 구체적인 우선 적용 대상은 갤럭시 스마트폰 S20·S21·S22 시리즈와 갤럭시 북 프로 39.6cm(15.6인치) 시리즈 노트북, 80cm(32인치) TV 3개 모델이다.

자가 수리를 원하는 이용자는 삼성전자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필요한 부품과 수리 도구를 구입할 수 있다. 부품별 수리 메뉴얼과 동영상은 삼성전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자가 수리를 고려 중인 소비자는 홈페이지에 소개된 자가 수리 관련 정보와 관련 주의 사항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품목별로 자가 수리가 가능한 부품을 보면 스마트폰의 경우 디스플레이, 후면 커버, 충전 포트 등 3개 부품에서 가능해졌다.

노트북은 터치패드와 지문 인식 전원 버튼, 디스플레이, 배터리 등 총 7개 부품이 자가 수리 대상에 포함됐다. 이 부품들은 수리 수요가 가장 높았던 부품들이라고 삼성전자는 설명했다.

TV 3개 모델의 경우 패널을 교체할 수 있다.

이용자는 직접 부품을 교체한 후

자가 수리 도우미 앱을 활용해 새로운 부품이 제대로 동작하도록 최적화할 수 있다.

이후 삼성 멤버스 앱 자가 진단 기능에서 수리 결과의 이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

수리가 끝난 소비자는 서비스센터 방문하거나 택배 서비스를 이용해 교체된 부품과 수리 도구를 반납하고 친환경 보증금을 환급받게 된다.

회수된 부품은 삼성전자가 검수를 거쳐 재활용하거나 폐기한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8월 미국에서 자가 수리 프로그램을 도입한 뒤 우리나라가 자가 수리가 가능해진 두 번째 국가가 됐다고 설명했다.

박선식기자 sspark@jeonmae.co.kr



평택시는 국내육성벼 신품종 사업을 위해 신품종 개발에 들어갔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품종명 공모를 통해 '곰마지'로 명명했다. (평택시 제공)

## 평택시, 국내육성 벼 신품종 개발 본격 착수

경기도 평택시는 슈퍼오닝쌀 생산단지의 일본 품종인 추정벼를 대체하고 국내육성 벼 신품종 사업을 위해 신품종 개발에 들어갔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019년 도농업기술원과 벼 신품종 개발보급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맺고 외래품종 대체와 적합 벼 품종으로 개발·선정한 경기도 육성품종이다.

3년간 신품종의 지리적응시범을 완료했으며 이 과정에서 6개 대상 품종 중 '경기12호'를 최종 선정한 뒤 품종명 공모를 통해 '곰마지'로 명명했다.

또 2022년에는 품종보호출원 등록을 완료했으며 신품종 재배단지를 104ha 조성했다. 또 최초 단백질 등급에 따른 수매장려금 차등제도 실시와 우량종자 공급, 재배기술 교육·지도, 포장 현장심사 등을 통해 지속적 고품질 쌀생산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

2023년부터는 슈퍼오닝쌀 생산단지 '추정(아키바레)' 품종을 완전대체해 1,500ha로 본격 재배하기 시작했다.

'곰마지'는 중만생종으로 쌀이 맑고 투명하고 밥맛이 우수한 장점이 있다.

출수기는 8월 15일 경이며 흰외마름병과 줄무늬잎마름병에 강하고 쌀의 제현율과 완전미 도정수율이 우수한 장점을 갖고 있다.

수매장려금 차등제도 실시와 우량종자 공급, 재배기술 교육·지도, 포장 현장심사 등을 통해 지속적 고품질 쌀생산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

2023년부터는 슈퍼오닝쌀 생산단지 '추정(아키바레)' 품종을 완전대체해 1,500ha로 본격 재배하기 시작했다.

'곰마지'는 중만생종으로 쌀이 맑고 투명하고 밥맛이 우수한 장점이 있다.

출수기는 8월 15일 경이며 흰외마름병과 줄무늬잎마름병에 강하고 쌀의 제현율과 완전미 도정수율이 우수한 장점을 갖고 있다.

질소비료 과용 시 도복발생으로 인한 미질저하, 등숙저하, 속색불량, 수발아 및 병해충 발생이 우려되므로 반드시 적정 균형시비를 해야 한다.

슈퍼오닝브랜드 쌀 '곰마지'는 농협간 100% 계약재배를 통해 최신 유통시설에서 매입, 관리, 선별, 포장, 규격화 과정을 거쳐 철저하게 관리되어 유통된다.

본격적인 시장유통, 중·고교 학교급식 납품을 위해 품질 및 홍보 등 다방면에서 노력하고 있다.

경기12호는 추정벼와 고시히카리에 없는 병해충 저항성을 품종적으로 가지고 있어 친환경재배를 할 경우 농약사용을 줄일 수 있는 큰 강점을 가지고 있다.

(평택시 지원을 받아 작성된 기사입니다)

## 경기도서 개발 콩·쌀로 만든 가공품 선보인다

###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서 전시 콩 가공품·쌀맥주 등 시제품 시용 통한 소비자 의견청취

경기도농업기술원은 30일부터 내달 2일까지 국내 최대규모 식품산업 전문 전시인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에서 콩과 쌀 품종, 이들을 활용한 가공품을 전시 홍보한다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도 농기원에서 개발한 가공품을 외부 소비자와 유통구매자에게 선보이는 기회로 바삭거리는 식감이 좋은 콩 스낵과 돈가스에 찍어 먹거나 육류에 발라서 굽는 발효 콩 소스 2종, 도 농기원에서 개발해서 기술 이전한 새콤한 쌀 맥주, 증류주, 딸기 맥주 시제품 등 주류를 시용 또는 시식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또한 이러한 가공품의 원료가 되는 도에서 개발한 강풍콩, 만풍콩, 녹풍콩, 조원콩 등 4가지의 콩 품종

을 비교해볼 수도 있다.

경기콩의 재배 주산지는 연천, 파주, 포천 등으로 북부지역이 재배면적의 74%를 차지하고 있다. 이 지역은 자연환경이 청정한 DMZ 지역으로 고품질 경기콩의 명성을 유지할 수 있는 요건이 된다.

경기도에서는 2005년부터 경기 지역에 적합한 콩 품종을 연구해오고 있다.

현재까지 강풍콩 등 4품종을 포함해서 7품종을 개발했으며 농가에 보급해 장류, 두부용 등 다양한 가공용으로 활용되고 있다.

경기미는 이미 조선 성종 때부터 최고급 쌀로 인식되어 왔으며 도는 2003년부터 경기도에 적합한 쌀 품종을 개발해왔다. 밥맛이 좋고 병해충에도 강한 '참드림'과 구수하고 은은한 향을 가진 '여리향' 또한 도내 각 시군에 맞는 품종을 육성해 고양의 '가와지1호', 평택의 '곰마지', 안성의 '수러미' 등을 개발했다. 이러한 품종은 맛과 품질이 좋아 추정 등 기존 품종을 대체하는

데성공했으며, 농가의 소득을 높이는 중추적인 역할도 하고 있다. 전 시회를 방문하면 개발한 쌀 품종 5가지를 눈으로 보고 향기도 맡아볼 수 있다.

김석철 원장은 “이번에 나오는 콩, 쌀과 가공품들은 도에서 자체 개발한 성과물들”이라며 “이번 전

사회가 우수한 경기 농산물과 가공품을 알리고 소비 확대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고품질의 차별화된 농산물과 가공품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를 계속하겠다”라고 말했다.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 성남시-기보, 기술창업기업에 80억 우대보증

지원 협약...업체당 5억 원 이내

경기 성남시가 기술창업기업 지원에 나섰다.

이를 위해 시는 30일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과 금융지원 업무에 관한 서면 협약을 실시했다.

협약에 따라 시는 올해와 내년에 2억 원씩 총 4억 원의 특별출연금을 기보에 출연한다.

이를 재원으로 기보는 경영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지역 기술창업기

업에 업체당 5억 원 이내에서 총 80억 원 규모의 우대보증을 한다.

3년간 보증 비율 100% 적용에 보증료를 0.2% 감면하는 우대 조치도 이뤄진다.

대상 기업은 정보통신,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등에서 신기술 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이면서 공장 또는 사업장이 성남시에 있는 창업 7년 이내의 업체다.

이영열기자 leey@jeonmae.co.kr

## GH, 동탄2 A105 경기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대학생·청년 등 1,140세대 공고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동탄(2)신도시 A105블록 경기행복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모집하는 세대는 총 1,140세대로 대학생 129세대, 청년 390세대, 신혼부부·한부모가족 384세대, 고령자 150세대, 주거급여수급자

87세대로 이뤄져 있다. 나머지 360세대는 용인플랫폼 도시개발사업 철거민들의 임시 주거용 주택으로 별도 공급될 예정이다.

한편, 동탄2 A105블록 경기행복주택은 동탄(2)신도시 신주거 문화타운 내에 소재한 단지로 풍부한 생활인프라와 왕배산 공원, 신리천 수변공원 등 쾌적한 자연환경을 갖

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청약신청은 내달 19일부터 22일까지 인터넷(GH주택 청약센터, http://apply.gh.or.kr)을 통해 진행하며 계약은 입주 자격 심사를 거친 당첨자는 10월31일에서 11월3일까지 진행되는 전자계약 후 24년 6월부터 입주하게 된다.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신뢰·공감", 군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

**강원 발전의 새 역사, 새로운 희망 강원시의 시대!**

**고성군의회가 강원 특별자치도 성공 출범을 기원합니다.**

강원도 고성군의회









제15회 류방택 별축제 개최

충남 서산시시는 내달 3일 서산류방택 천문기상과학관 일원에서 제15회 류방택 별축제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축제는 고유제, 식전 공연, 개막식을 시작으로 에어로켓 발사대회, 천문우주과학 미술실기대회, OX퀴즈 대회, 천체망원경 관측, 점성대 모형 만들기, 인간보성 고리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특히 올해는 LED 쥐불놀이, DIY 별 조명등 만들기 등 야간 특별 프로그램이 새롭게 추가됐으며 별축제 드론라이트 쇼가 마련됐다.

서산/한상규기자 hansg@jeonmae.co.kr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 추진

강원 동해시는 환경성 질환 조기발견과 예방을 위한 중점 관리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소아기 때 치료 시기를 놓쳐 성인이 될 경우 이환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알레르기 질환 환자 조기 발견, 적정치료, 지속관리 등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주대상 연령을 영유아 및 초등학교로 선정해 관내 초등학교 3개소, 유치원 1개소, 어린이집 21개소 등 총 25개소를 대상으로 아토피·천식 안심학교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 오는 7월부터 11월 말까지 아토피·천식 안심 초등학교 어린이, 학부모·교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예방관리교육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동해/이교형기자 leekh@jeonmae.co.kr

군 소음 피해보상금 지급 결정

강원 양양군은 올해 군 소음 피해 주민 54명에게 보상금 2054만 원을 지급한다고 30일 밝혔다.

보상 대상기간은 지난 2020년 11월 27일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며 지역은 국방부에서 2021년 12월 말에 지정·고시한 지역으로 군의 경우 강현면 정암리·장산리 소재 515항공대대 비행장이다.

보상금은 소음 정도에 따라 1인당 1종 월 6만 원, 2종 월 4만5000원, 3종 월 3만 원이 지급되며, 거주기간·전입시기·사업장 및 근무지 위치 등의 조건에 따른 감액을 적용해 개인별 보상금액이 결정됐다.

군은 산정 금액에 따른 결정 통지서를 이달 말 통지하고 오는 6~7월 이의 신청 및 작권정정 기간을 거쳐 8월 중 피해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양양/박명기기자 parksh\_mk@jeonmae.co.kr

양구군, 군민안전보험 보장범위 확대...“생활안정 지원”

24→27개 항목 확대...폭발·대중교통·강도상해사망 등 상해진단 위로금 지원·자연재해·사회재난 사망 신규추가

강원 양구군이 군민안전보험의 보장 범위를 기존 24개에서 27개 항목으로 확대했다.

30일 군에 따르면 보장 범위는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 사망(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중상해 사망(후유장애) ▲강도상해 사망(후유장애) ▲농기계사고 상해 사망(후유장애) ▲스쿨존 및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가스 사고 사망(후유장애) ▲의사 사고 사망 ▲물놀이 사고 사망 ▲화상 수술비 ▲온열질환 진단비 ▲개 물림 사고 사망 ▲상해진단 위로금 지원 ▲자연재해 및 사회재난 사망 등이다.

올해는 상해진단 위로금 지원과 자연재해 사망, 사회재난 사망을 신규 추가해 군민의 생활 안정을 도울 계획이다.

상해진단 위로금은 상해로 인해 의료기관에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았을 경우 기간에 따라 10만원에서 15만원까지의 위로금을 받을 수 있다.

사회재난 사망은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 3명 이상의 사망 또는 20명 이상이 부상을 입는 등 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경우 1천만 원의 보험료가 지급된다. 또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대설, 한파 등의 자연재해로 사망했을 경우 1천만 원의 보험료를 받을 수 있다.

보험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군민안전보험 통합상담센터’의 안내에 따라 증빙서류 등을 첨부해서 신청하면 된다.

앞서 군은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각종 재해 및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군민의 정신적·경제적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군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지난 2019년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박금배 군 안전총괄과장은 “앞으로도 군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구/오경민기자 ojm@jeonmae.co.kr

합산림문화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체



충남 보령시는 30일 시청상황실에서 김동일 시장(오른쪽 두번째), 보령교육지원청 백정현 교육장, 시어린이집 연합회 명소운 회장, 체험학습연구개발협회 서혜승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 건강과 산림가치 증진을 위한 복합산림문화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보령시 제공)

보령시, 산림가치 증진 복합산림문화 활성화

맞춤형 산림·목재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협력

충남 보령시는 30일 시청상황실에서 시민의 건강과 산림가치 증진을 위한 복합산림문화 활성화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동일 시장, 보령교육지원청 백정현 교육장, 보령시어린이집 연합회 명소운 회장, 체험학습연구개발협회 서혜승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시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유아, 초·중고 학생들에게 맞춤형 산림 및 목재 교육·체험프로그램 개발·보급을 위한 상호 협력을 마련할 계획이다.

협약에 따라 시는 교육·전문가 양성 과정 개발, 산림교과과정 및 프로그램 개발 등에 따른 재정적 지원과 산림 관련 보유시설·인적자원의 공동이용 및 활용을 지원한다.

또 보령교육지원청은 산림·체험교육 활성화를 위해 숲 체험을 학교 밖 프로그램으로 지정하고 목재문화체험 및 목재교당이 진로체험기회로 확대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한다.

보령/이건영기자 leegy@jeonmae.co.kr

보령시어린이집 연합회는 관내 어린이집이 유아 숲 체험 홍보 활동을, 체험학습연구개발협회는 숲 놀이지도사, 숲 체험행사관리사, 유아숲지도사 등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할 예정이다.

김동일 시장은 “해양과 산림을 연계하는 복합해양산림관광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강원 삼척시는 문화체육관광부 '2023년 6월 여행가는 달 캠페인'과 연계한 관광지 입장료 할인 이벤트를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내달 시가 직영하는 유료관광지의 입장료 및 체험비를 시민할인율을 적용해 할인할 계획이다.

대상 관광지는 환선굴(모노레일 미포함), 해신당공원, 수로부인현화공원, 활기 치유의 숲, 도계유리나라, 도계나루 등 6개소다.

활기 치유의 숲은 시민할인율이 적용되는 족욕테라피와 온열테라피 프로그램만 체험비 할인이되며 도계유리나라와 도계나루나라는 내달 11일부터 18일까지만 할인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이벤트를 통해 많은 관광객을 유치해 지역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삼척/김홍식기자 kimhs@jeonmae.co.kr

태안군, 용도변경 설계도면 작성 서비스 호응

공직자가 설계도면 직접 작성 “군민 중심 민원 서비스 제공”

충남 태안군의 용도변경 설계도면 작성 서비스가 호응을 얻고 있다.

30일 군에 따르면 군은 건축물 단순 용도변경 등의 민원에 대해 군 공직자가 설계도면을 직접 작성·제공하는 ‘용도변경 설계도면 작성 서비스’를 올해부터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민원인이 건축사 사무소 등에 의뢰해 작성해야 했던 설계도면을 군이 직접 작성해주는 것으로 대상은 기존 건축물의 평면도가 존재하며 증·개축·대수선 등을 수반하지 않고 구조안전 확인 서류의 제출 대상이 아닌 500㎡ 미만의 단순 용도변경 및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신청 건이다.

그간 민원인이 건축물 용도변경 신청 시 50만~100만 원의 의뢰비용을 건축사에 지불하는 등 경제적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군은 올해부터 단순 용도변경 및 단순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시 설계도면 작성을 건축직류 공직자가 직접 처리하고 이를 ‘건물 현황(도면 관리)’에 등록하는 서비스를 시행했다.

군에 접수되는 건축물 용도변경(표시변경) 신청 민원이 연간 약 150건에 달하는 만큼 앞으로도 많은 군민이 이번 시책의 혜택을 볼 것으로 군은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군민의 입장에서 하나하나 살펴 불편 및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시책 발굴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태안/한상규기자 hansg@jeonmae.co.kr

삼척시, 6월 관광지 입장료 할인 이벤트 추진

강원 삼척시는 문화체육관광부 '2023년 6월 여행가는 달 캠페인'과 연계한 관광지 입장료 할인 이벤트를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내달 시가 직영하는 유료관광지의 입장료 및 체험비를 시민할인율을 적용해 할인할 계획이다.

대상 관광지는 환선굴(모노레일 미포함), 해신당공원, 수로부인현화공원, 활기 치유의 숲, 도계유리나라, 도계나루 등 6개소다.

활기 치유의 숲은 시민할인율이 적용되는 족욕테라피와 온열테라피 프로그램만 체험비 할인이되며 도계유리나라와 도계나루나라는 내달 11일부터 18일까지만 할인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이벤트를 통해 많은 관광객을 유치해 지역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삼척/김홍식기자 kimhs@jeonmae.co.kr

**구들나라** 흙집이 사람을 살린다

EBS 극한직업 방영(여주 장작아궁이왕토판) 2015.2.11 (본사 청우산업 개발자)

철~철 지지는 장작구들방 전국 산과 밭에 있는 컨테이너를 교체해드립니다.

구들(수출용) 왕토판구들방 컨테이너

우리의 구들을 세계인들의 건강을 위하여 개발 경량화, 내구성, 고단열, 항포, 일라이트 적용

[안티먼 디게아라]산,밭,뜰에 방치된 컨테이너를 생존(초수) 건축으로 시공

왕토판 카라반 (캠핑카)

1일 연료사용 예) 찰나무 장작 길이50cm×폭20cm 3개면 종일 따뜻함

경치 좋은 곳에서 숙박?? 잡고 나면 어떨까요?? → 왕토판 카라반은 습도제거, 질-겉 지지는 구들방 기능으로 피로가 없습니다.

구들나라 www.hwangtotech.co.kr 010-5277-5255 / 031-882-8278

전국매일신문 창간 26주년을 축하합니다

강북구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강북구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소통과 혁신으로 새로운 시대를 여는 강북구의회

강북구의회 GANGBUK DISTRICT COUNCIL

강북구의회 유튜브 [강북구의회 의정 TV] www.youtube.com/@gangbukcouncil

강북구의회 누리집 council.gangbuk.go.kr



# 용인 플랫폼시티 조성사업 '순조'

경기 용인시 플랫폼시티 사업 구역 내 사유지 토지 보상이 69% 이상 완료됐다. 이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 절차를 개시할 수 있게 됐다.

시는 보상절차 시작 6개월만에 사업 대상 사유지 189만6천여㎡ 가운데 130만여㎡(68.9%)에 대한 협의의 수용이 완료됐다고 30일 밝혔다.

토지 보상액은 2조1624억 원으로 집계됐다.

사업 공동시행자인 용인시, 경기도, 경기주택도시공사, 용인도시공사는 플랫폼시티 사업 추진을 위한 기존 토지 확보를 완료했다. 시는 토지 보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토지 보상절차 64% 완료  
보상액 2조 1624억 원 집계  
나머지부지추가협의·수용**

2019년부터 토지주, 주민 등과 10차례의 소통추진단 회의, 7차례에 걸친 보상협의 회를 개최했다.

공동 시행자는 미확보된 나머지 토지(31.1%)도 추가 보상 협의나 오는 10월 중 시작되는 수용재결을 통해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토지주의 적극적인 협조

로 토지 보상을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약 69%에 달하는 토지를 확보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용인도시공사가 지난 19일 행정안전부로부터 9천441억 원 규모의 공사채 발행을 승인받음에 따라 보상금 지급도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 플랫폼시티는 총사업비 6조 2851억 원을 투입해 기흥구 보정동, 마북동, 신갈동 일원 275만7천186㎡에 경제도시형 복합자족도시를 조성하는 도시개발사업이다. 내년 상반기 착공해 2029년 준공이 목표다.

용인/유원수기자 youys@jeonmae.co.kr

# 서울에프엔비 강원 원주에 신규공장 짓는다

오늘 강원도와 480억 투자협약식 개최

67명 신규일자리 창출 등 경제활성화 기대

서울에프엔비가 강원 원주에 480억 원을 투자해 신규공장을 짓는다.

강원도는 31일 (주)서울에프엔비와 원주공장 신설과 관련한 투자협약을 체결한다고 30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주)서울에프엔비는 원주 기업도시에 2026년까지 480억 원을 투자해 15483㎡(4683평) 규모의 유제품 등의 제조공장을 신설하고 67명을 신규 고용할 계획이다.

(주)서울에프엔비는 식품 생산부터 가공, 유통,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첨단식품기술이 적용되는 스마트공장을 보유한 기술선도 기업으로, 기존의 위탁생산 및 제조자설계생산을 하면서 확보된 제조기술을 바탕으로 2014년 국내 최초로 RTD(Ready To Drink) 커피인 자사 브랜드 '아라버스'를 태국에 수출해 선풍적인 인기몰이를 중이다.

성장세와 맞물려 2026년 신축예정인 원주공장은 생산 전 과정을 정보통신기술

(ICT)을 활용한 스마트공장 체제로 구축함과 동시에 첨단 물류시설을 강화하여 생산부터 물류 및 유통까지 연결되는 통합공장관리체계를 갖출 예정이다.

오덕근 대표이사는 "투자협약이 기업의 미래에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 신설되는 공장에는 지역 주민을 우선 채용하는 등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태 지사는 "지역사회와 상생 발전하고 세계적인 기업으로 나아가 수 있도록 강원도가 행정·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춘천/김영탁기자 youngtk@jeonmae.co.kr



육동한 강원 춘천시장이 지난 28일(현지시간) 아제르바이잔에서 열린 WF 집행위원회에서 본부의 춘천 유치 당위성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춘천시 제공)

## 춘천시, 세계태권도연맹 본부 유치 발 벗고 나섰다

강원 춘천시가 세계태권도연맹(WT)본부 춘천 유치가 발 벗고 나섰다. 30일 시에 따르면 육동한 시장은 지난 28일(현지시간) 아제르바이잔 바쿠 시에서 열린 세계태권도연맹(WT) 집행위원회에서 세계태권도연맹(WT)본부 춘천 유치 필요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강조했다.

세계태권도연맹(WT) 집행위원회 세계태권도연맹 총재 포함 대륙별 연맹회장 등 총회 집행위원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집행위원회에서 육 시장은 세계태권도연맹(WT) 집행위원을 대상으로 "춘천은 20년 넘게 코리아오픈 국

제태권도대회를 열어온 경험이 있으며, 태권도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30만 시민이 있다"며 "특히 춘천은 6개의 대학이 있는 전통적인 교육도시로, 바이오, 데이터 등 첨단지식산업 역량을 갖

**육동한 시장, 아제르바이잔서 집행위원 대상 필요성 강조**  
**오찬·총회연설 "춘천, 태권도 미래를 위한 최고의 파트너"**

춘 미래 지향적 도시이기도 한만큼, 태권도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교육적·산업적 뒷받침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어 "춘천이 태권도 미래를 위한 최고의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지난 4월 18일 유치 제안 평가단 위원장으로 춘천을 찾았던 피롤(태국) 위원장이 춘천에 대한 감명 깊은 인상과 춘천시민들의 열렬한 유치 의지 등을 기 타 집행위원들에게 소개하기도 했다.

또한 육 시장은 오는 8월 춘천에서 열리는 세계태권도문화축제 성공 개최를 위한 연맹 차원의 지원과 3종 국제대회의 3회 연속 대회 승인 등을 건의했다.

한편 방문단은 29일 WT 심포지엄 참석,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개막식, 세계주니어선수권대회협약, 30일 대륙연맹회장 초청 오찬 등의 일정을 소화 후 내달 1일 귀국할 예정이다.

춘천/이승희기자 leesm@jeonmae.co.kr

## 정선군, 신월동산 유아숲체험원 완공

내달부터 본격 운영...숲속교실 등 다양한 시설 구비

강원 정선군은 유아숲 체험원을 완공하고 내달부터 본격 운영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군 정선읍 신월리 899-1 일원에 1억 5000여만 원 사업비를 투입해 1만 5340㎡ 규모 부지에 숲속교실, 잔디광장, 숲속놀이터 등 유아들을 대상으로 한 산림교육 체험시설을 등 유아가 숲에서 자연을 느끼고 배울 수 있는 다양한 공간을 마련했다.

또한 안전을 고려해 추가적으로 전망대 크 일부구간 재설치, 배수로 그레이팅 설치, 노면 절성토 및 야자매트 설치 등 안전 시설을 정비해 유아들의 안전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했다.

아울러 동부지방산림청에 유아숲체험원 등록을 완료한 후 유아숲 교육업 또는 종합산림복지업 등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업체를 선정해 운영

계약을 체결하고 6월까지 유아숲체험원 위탁운영을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군은 유아숲 체험원을 비롯한 산림공원 조성사업 등 다양한 사업추진과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인구감소 대응 차원에서의 외부 인구 유입은 물론 관광 유휴지에도 큰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형규 군 산림과장은 "답답한 일상생활에서 벗어나 청정 자연속에서 오감을 만족할 수 있는 다양한 숲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선/최재혁기자 jhchoi@jeonmae.co.kr

## 양평군, 계절근로자 입국...농촌인력난 해결 단비

총 31명 5개월간 13개 농가 배정

"인력난 지역농가 많은 도움 되길"

경기 양평군은 최근 캄보디아 시엠립(Siem Reap) 출신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입국한 계절근로자는 총 31명으로 앞으로 5개월 간 관내 13개 농가에 배정되어 영농작업을 돕게 되며, 성실하게 근무한 계절근로자는 '성실근로자' 자격으로 1회 재입국 할 기회가 주어진다.

앞서 군 전진선 군수는 지난 1월 4일부터 1월 7일까지 캄보디아 시엠립주를 직

접 방문해 윤 린네 시엠립주 부지사와 국장급 공무원이 참석한 자리에서 계절근로자 도입 관련 우호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지난 2월 '양평군-캄보디아 왕국 노동직업훈련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MOU' 체결을 마쳤으며, 현지에서의 계절근로자 모집과 교육 사증(VISA) 발급인정 허가, 주 캄보디아 대한민국 대사관의 사증(VISA) 발급 등의 과정을 거쳐 추진됐다.

전진선 군수는 "캄보디아에서 온 계절근로자들이 각 농가에 배치되어 성실하게 근무해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농가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양평/홍문식기자 hongms@jeonmae.co.kr

## 고향사랑기부제 업무협약 체결

충남 서천군은 최근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기업(주)공감만세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군은 (주)공감만세가 운영하고 있는 고향사랑기부제 민간홍보플랫폼 '위기브'를 통해 고향사랑기부금 활동, 답례품, 제도안내 등 군의 모금활동 안내 및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 등을 알릴 예정이다.

고두환 (주)공감만세 대표는 "서천 소개 페이지, 고향사랑기부제 정보, 답례품 소개 등에 관한 홍보를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며 "지역자원이 풍부한 점을 충분히 홍보한다면 기부가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서천/노영철기자 noyc@jeonmae.co.kr

##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강원 양구군은 신혼부부에게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펼친다고 3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양구군 주민등록자 ▲혼인 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부부합산 연 소득 8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 ▲신혼부부 명의 주택 전·월세 보증금 기대출자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단, 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부모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분양권을 소유한 자 등은 제외된다.

지원금은 보증금 대출 잔액 최대 1억 원 한도 내에서, 최대 2년 동안 연간 3.0%의 이자 상환액을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내달 1일부터 30일까지이며, 스마트폰 '우리도-강원도' 앱(APP)으로 신청하면 되고, 군은 부부합산 연 소득, 자녀 수 등의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해 8월경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양구/오영민기자 oym@jeonmae.co.kr

## 동두천시,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점검 나서

오염물질 무단배출 사전 차단 '초점'...오는 8월까지

경기 동두천시는 오는 8월까지 환경오염행위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이번 특별점검에 대해 하계 휴가철, 집중호우 등 취약시기를 이용한 오염물질 무단배출을 사전 차단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점검 내용은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배출 및 방지시설 적정관리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이를 위해 시는 수질오염물질의 무단 방류 또는 유출 사고 발생 우려가 큰 사업장을 집중 점검하고, 주요 하천을 지속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또 위반사항이 발견된 사업장은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시 홈페이지에 처분 내역을 공개할 예정이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르면 폐수배출시설

을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오염물질 배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부적정 운영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공공수역에 유해물질을 유출시키거나 버리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공공수역에 폐기물·분뇨·가축분뇨 등을 버리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점검으로 집중호우 시 폐수를 비롯한 환경오염물질이 공공수역에 유입되는 등의 환경오염행위가 사전에 차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동두천/진양현기자 jyh@jeonmae.co.kr

26 전국매일신문 창간 26주년을 축하합니다

### 제품인증서

한국표준협회 인증

**이주신이랜드는**  
어린이 놀이시설, 체력단련시설, 휴식시설  
전문 도매업체로 지식경제부가 인정한 안전한 제품을  
가장 저렴한 가격과 서비스로  
신속하게 출고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주신이랜드의 모든 제품은 발명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록이 된 제품이니 지적 재산권 침해로 인한 법적, 경제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침해 사실을 알고 계신 분은 제보해주시기 바랍니다.) (제품의 품질 개선을 위하여 별도의 고지 없이 사양이 변경될 수 있음.)

**이주신이랜드 SINI LAND Co., Ltd.**

공장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173번길 85-28(가좌동 517-6)  
본사및총판본부 : 경기. 고양. 일산서구. 장대길 229-60(장항동 502-100)  
Tel. 031\_903\_8681, 5456 Fax. 031\_902\_9871  
siniland.co.kr  
E-mail : si8681@chol.com

오늘의 날씨

구름 많다가 맑아져

31일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다가 아침부터 차차 맑아지겠다. 제주도는 아침부터 흐리고 비가 내리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2~18도, 낮 최고기온은 20~28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서해상과 제주도 해상에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해야 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1.5m, 서해 앞바다에서 0.5~1.0m, 남해 앞바다에서 0.5~1.5m로 일겠다.



- 생활지수: 운동 80, 외출 80, 빨래 70, 세차 70

예산시장, 재개장 두 달 만에 68만명 방문 '후끈'

주말 연휴 기간 매일 3만명 방문...아사도 1시간도 안돼 소진
최재구 군수 "시설 인프라 개선"...8월 '비어페스티벌' 개최

충남 예산시장이 재개장 이후 두 달 만에 48만여명이 방문하면서 누적 총 방문객 68만명을 돌파했다. 30일 군에 따르면 평일에는 6000~7000명, 주말을 비롯한 연휴 기간에는 매일 3만명에서 3만5000명까지 방문객의 발길이 줄을 잇는 가운데 이달 가정의 달 연휴특수를 누린 것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최근에는 올 8월 처음으로 예산시장에서 개최하고자 준비

중인 '예산시장 비어페스티벌'의 주메뉴인 아사도(돼지바베큐)를 시범 판매한지 1시간도 되지 않아 메뉴가 소진되는 등 새로운 시도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이끌어내고 있다. 최재구 군수는 "예산시장의 전국적인 인기를 꾸준히 유지하고자 주변 시설 인프라에 대한 개선과 여름 우기철에 대비한 각종 위생문제 등에 대해서도 집중 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충남 예산시장이 재개장 이후 두 달 만에 48만여명이 방문하면서 누적 총 방문객 68만명을 돌파했다. 사진은 방문객들로 북적이는 예산시장 모습. (예산군 제공)

한편 군과 더본코리아는 다음 달에는 추가 창업 5개소를 준비 중이며, 8월에는 지역 맥주와 함께하는 '예산시장 비어페스티벌'을 최초로 개최할 계획이다. 예산/이준택기자 chltlee@jeonmae.co.kr

수원시, 초·중·고 찾아가는 자전거·PM 안전교육

경기 수원시가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2023년 찾아가는 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30일 시에 따르면 이번 안전교육은 36개 초·중·고등학교 전 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전거문화사회적협동조합 소속 전문 강사가 11월 말까지 학교에 방문해 교육한다. 교육 내용은 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PM) 바로 알기(법적 지위 이해하기), 올바른 보호 장비 착용법, 자전거·개인형 이동 장치(PM) 교통표지판의 이해, 자전거 점검 방법·자전거 주행 연습 등이다. 수원/박선식기자 sspark@jeonmae.co.kr

서산시, 노후 공동주택 6개 단지 실태조사

충남 서산시는 준공 후 15년이 지난 공동주택 6개 단지 총 63개 동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시설물의 안전 등급을 결정하고 안전 등급이 'C'등급 이하로 판정된 공동주택을 '제3종 시설물'로 지정한다. 제3종 시설물로 지정된 건축물의 소유자, 관리주체는 매년 2월 15일까지 시설물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반기별 1회 이상 안전 점검을 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누리집을 확인하거나, 주택과 공동주택관리팀(041-660-3147)으로 문의하면 된다. 서산/한성규기자 hansg@jeonmae.co.kr

아산시, 여름철 우기 대비 현장 안전 점검

충남 아산시는 다음 달 30일까지 여름철 우기 대비 현장 안전 점검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안전 점검 대상은 환경녹지국 7개 부서가 관리하는 공사 현장, 하천, 산림, 공원 등 161개소의 침수 우려 및 산사태 취약 구간, 수문, 제방, 공원 배수시설, 배수펌프 등이다. 점검 후 가벼운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고 수해 우려 사항은 다음 달 말까지 보완 조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선우문 국장은 "다발성 집중호우에 따른 재해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대비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산/신동국기자 shndk@jeonmae.co.kr

강원 고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강원 고성군이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30일 군에 따르면 농업인 대부분이 1회 작업량이 4시간 미만인 반면 임대료는 1일 기준으로 산정돼 하루 2~3시간만 사용 하더라도 1일 임대료를 납부하고 있어 합리적인 임대사업 운영이 요구되고 있다. 이와 관련 기존 임대기간 1일 단위에서 최소 4시간 단위 조정 임대료는 1일 기준 임대료의 50%로 경감되며 추가 이용 시는 사용시간에 상관없이 4시간 단위로 추가 부과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조례 안은 다음 달 6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두고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7~8월중 의회 본회의의 상정 및 공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고성/박승호기자 shpark@jeonmae.co.kr

경기도, 야생동물 구조 건수 '급증'...이달만 345건

어미 잃은 새끼 구조 50.1%
어린새 발견시 전문가 상담 우선
'경기도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의 야생동물 구조 건수가 5월 들어 급증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도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말 기준 573건의 야생동물이 구조됐으며 5월 한 달 동안 구조된 야생동물의 구조 건수는 345건에 달한다. 이는 올해 전체 야생동물 구조 건수 918건의 37.6%에 해당한다.

구조 원인별로 분류하면 어미를 잃은 새끼가 173건(조류 165건, 포유류 8건)으로 5월 구조 건수의 50.1%를 차지했다. 뒤이어 건물 유리창과의 충돌로 다쳐 구조된 건수가 70건(20.3%)이었다. 새끼 동물이 많이 구조되는 것은 매년 반복되는 현상으로 이는 봄철 공원이나 아파트 단지 수풀에서 '이소(雛巢, 새의 새끼가 자라 동지에서 떠나는 일)' 단계의 날지 못하는 어린 새를 발견하고 신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만약 산책 중 날지 못하는 어린 새를 발견할 시에는 바로 구조하는 것보다는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로 전화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다. 박경애 동물복지과장은 "어린 동물을 발견했을 때 즉각 구조를 하려는 것보다 주변에 어미가 있는지 등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급증하는 야생동물 구조에 대응하기 위해 평택, 연천 센터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영민기자 han\_yj@jeonmae.co.kr

청양군 '면암 고택' 충남도 유형문화재 지정됐다

최익현 선생 약 6년여간 거주
중부 양반 가옥 연구 중요자료

충남 청양군 목면 송마리에 소재 '면암 고택'이 충남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됐다. 30일 군에 따르면 면암 고택은 조선 후기 대학자이면서 구한말 의병 활동의 정신적 지주였던 최익현(1833~1907년) 선생께서 1900년부터 약 6년여간 거주했던 집이다. 면암 고택은 지난 1월 20일 충남도 유형문화재로 지정 예고됐으며 30일간의 예고 기간을 거친 후 충남도 문화재위원회 최종 심의를 통과해 이날 지정이 시됐다. 면암 고택은 안채와 사랑채, 사당채가 일곽을 형성하고 있으며 안채에서 발견된 상당 목서 기록에 따라 1893년 조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안채는 중부지방 양반 가옥에서 볼 수 있는 'ㄱ'자의 평면구성으로 대청을 중앙에 두고 좌측에 안방, 윗방 그리고 부엌을 뒀



청양군 목면 '면암 고택' 충남도 문화재 지정·면암 고택안채모습. (청양군 제공)

고 우측에는 건넌방과 아궁이가 설치된 고상마루가 있다. 사랑채는 안채를 감싸 안고 있는 형태인데 중문간으로 한번 꺾여 안채로 진입하는 방식은 전통적 내외관념이 건축적 구성으로 잘 나타나 있는 구조로 평가된다. 사당에는 선대의 위패를 모셨으며 현재까지도 후손들이 제향을 받들고 있다. 면암 고택은 조선 말 양반 가옥의 기본 구성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으며 건축형식 또한 살림집의 기본 유형을 그대로 따르고 있어 중부지방 양반 가옥

연구의 중요 자료로 평가된다. 면암 고택은 최익현 선생 삶의 마지막 시기에 거주했던 곳으로 을사오적(을사늑약 체결의 주역) 처단을 주장하고 항일 의병의 구심적 역할을 한 역사적 활동이 이 고택을 중심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또 최익현 선생의 삶을 기리기 위해 1914년 건립한 사당 모덕사(충남도 문화재자료)와 나란히 자리하고 있는 점도 고택의 역사적 의미를 더한다. 청양/이건영기자 leegv@jeonmae.co.kr

중소벤처기업부·금융원, 삼척 소상공인 지원 협약

'장금이 결연 2호' 협약
강원 삼척시는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감독원이 삼척농협 대회의실에서 전통시장 소상공인 금융사기 예방 등을 위한 '장금이 결연 2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장금이 결연 2호 협약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삼척중앙시장 상인회와 삼척농협·농협은행 삼척시지부 간 신종 금융사기 정보 제보, 온·오프라인 금융사기 예방

교육지원 등의 '장금이 핫라인 구축'과 소공인 대출 전문상담으로 금융 혜택을 제공하는 '상생금융 상담 전담창구' 운영,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 이벤트 추진 등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전통시장 소상공인들의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맞춤형 금융상담을 제공해 관내 소상공인들의 안전한 근로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삼척/김홍식기자 kimhs@jeonmae.co.kr

국립생태원, 생태계교란생물 제거나서

서천군 유부도서 가시박 등
국립생태원은 최근 충남 서천군 유부도에서 생태계교란생물인 단풍잎돼지풀, 환삼덩굴과 가시박을 제거하는 환경보전활동을 펼쳤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환경보전활동은 국립생태원과 서천군, 서천생태관광협의회 3개 기관 임직원과 유부도 주민 등은 생태계 교란생물 전문가로부터

생물 위해성과 제거방법을 교육받은 후 제거작업을 실시했다. 또 유부도에 떠밀려온 해양쓰레기와 일반생활쓰레기, 폐지 등 수거하는 환경보전활동도 병행했다. 조도순 국립생태원장은 "지역사회와 상생협력해 축복의 땅 유부도 생태계 보전을 위한 연구와 환경보전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천/노영철기자 noyc@jeonmae.co.kr

안양시 동안구, 시설물 985개소 전수조사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계획
경기 안양시 동안구는 2023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시설물 전수조사 및 사전자료 정비를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은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 985개소이다. 구는 이달 말부터 사전자료 정비에 착수해 다음 달부터 7월까지 2개월간 26명의 조사원을 투입 시설물의 실제 용도 등을 파악하기 위한 현장 방문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현장 조사를 통해 교육·공교·사회복지시설 등 면제 대상 시설물을 확인하고, 휴·폐업 등의 사유로 30일 이상 미사용 시설물에 대해서는 올해 8월 미사용 신고 기간을 운영해 해당 기간에 대해 면제 처리할 계획이다. 이성희 구정장은 "교통유발부담금의 정확한 부과를 위해 기초자료 정비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양/배진석기자 baeps@jeonmae.co.kr

황성군, 복지회관 등 예술 상설전시관으로 변신

면 지역 문화력 키움사업 추진
강원 황성군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복지회관의 유휴공간이 지역 주민들의 문화 향유를 위한 예술 상설전시관으로 거듭난다. 30일 군에 따르면 '면 지역 문화력 키움' 사업을 추진 상설전시관 부족으로 지역예술가들의 다양한 전시의 어려움을 해소할 방침이며 다음 달 5일까지 대상지를 모집한다.

군은 다음 달 중 현장 심사를 거쳐 사업장소를 선정할 계획이며 9월 전시관 준공 이후 군민을 위한 각종 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윤관규 군 문화관광과장은 "정주 근접 문화시설이 부족한 면 지역 주민들의 문화 향유권 신장은 물론 황성지역 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을 위해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황성/김중수기자 kimjs@jeonmae.co.kr

의정부시청 앞 잔디광장 10월 말까지 시민에 개방

취사·상행위 등은 금지
경기 의정부시는 시청 앞 잔디광장을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개방했다고 30일 밝혔다. 개방 기간은 이달부터 10월 말까지로 취사 및 상행위는 금지하나 그늘막 텐트 설치 및 배달음식 취식은 가능하다.

이용객 진입을 제한하고 있었으나 시민들이 자유롭게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로프펜스를 제거했다. 개방 기간은 이달부터 10월 말까지로 취사 및 상행위는 금지하나 그늘막 텐트 설치 및 배달음식 취식은 가능하다. 의정부/강진구기자 kjg@jeonmae.co.kr

시는 이용객들의 쓰레기 자진 수거, 질서있는 공간 이용 등 질서있는 사용을 요청했으며 운영 추이를 살펴본 후 개방 기간 및 공간을 조정할 계획이다. 김동근 시장은 "개방된 잔디광장을 누구나 자유롭게 즐기면서 시민 만족도가 높은 녹색서비스가 제공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일상회복에 어린이 안전사고 급증...전년 대비 36.4% ↑

### 접수된 사고 건수 2만1642건...전체 27.5% 차지 미취학 아동 사고 71.4% 달해...걸음마기 '최대'

단계적 일상 회복에 따른 야외 활동이 증가하는 가운데 어린이 안전사고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3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

된 어린이 안전사고 건수는 전년 대비 36.4% 증가한 2만1642건으로 전체 안전사고의 27.5%를 차지했다. 앞서 어린이 안전사고는 지난 2019년 2만4971건에서 2020년 1만8494건,

2021년 1만5871건으로 급감했다가 지난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발달단계별로 보면 걸음마기(1~3세)가 8235건 38.1%으로 가장 많았고, 학령기(7~14세) 6196건 28.6%, 유아기(4~6세) 4822건 22.3%, 영아기(0세) 2389건 11.0% 순이었다. 학령기 이전인 취학 전 아동에게 발생한 안전사고가 전체 71.4%에 달했다.

안전사고 발생 장소는 주택이 전체의 65.7%를 차지했다. 다만 지난해의 경우 교육시설 110.3% ↑, 스포츠·레저시설 138.3% ↑, 숙박·음식점 60.8% ↑ 등에서의 발생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유형은 미끄러짐·넘어짐·부딪힘 8017건·37%과 추락 사고 5274건·23.4%가 전체의 60%를 차지했으며 이물 삼

킴·흡입 사고와 놀림·끼임 사고는 각각 2091건 9.7%, 1168건 5.4%이었다. 소비자원은 "영아·걸음마기는 주변 환경이, 유아·학령기는 환경과 함께 어린이의 행동적 특성이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어린이 성장 시기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지원기자 kjw9190@jeonmae.co.kr

## 사건·사고

### 옥상서 모텔 투숙객 불법촬영 40대 영장

빌라 옥상에서 옆 건물 모텔 투숙객들을 상습적으로 불법 촬영한 40대가 체포됐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모텔 투숙객들을 상습적으로 불법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조사결과 그는 휴대전화를 이용해 모텔 방문 틈 사이로 보이는 투숙객들을 촬영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28일 0시 20분께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해당 빌라 옥상에 있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불법 촬영한 영상을 개인적으로 소장하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평택/ 김원복기자 kimwb@jeonmae.co.kr

### 공사장서 노동자 숨져...중대재해법 조사

충남 아산시에서 60대 근로자가 건설장비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35분께 아산시의 서부내륙고속도로 12공구 건설 현장에서 시티건설 하청업체 노동자 A(60)씨가 굴삭기에 깔려 숨졌다. 사고가 난 공사 현장은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노동부는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을 중지시켰으며 현재 정확한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아산/ 신동국기자 shindk@jeonmae.co.kr

### 태안 저수지 아내 살해 용의자 재검거

필리핀 수용소에서 탈출한 태안 저수지 아내 살해사건 용의자가 다시 붙잡혔다. 30일 충남 서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필리핀 현지 경찰은 살인·시체유기 혐의로 붙잡혀 수용소에서 구금돼 있던 탈출한 A씨를 현지 시각 전날 오전 11시에 마닐라 한 콘도에서 검거했다. 앞서 지난 1월 23일 충남 서산에서 아내 B씨를 살해한 A씨는 태안 고남면의 한 저수지에서 시체를 유기한 뒤 필리핀으로 도주했다. 한국 경찰의 공조 요청을 받은 필리핀 경찰은 지난 2월 A씨를 현지에서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한국으로 송환되면 신속하게 수사를 이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산/ 한상규기자 hansg@jeonmae.co.kr



서산 부역 혐의 희생 사건 유해 발굴 현장 설명 충남 서산 부역 혐의 희생 사건 유해 발굴 현장에서 발굴 책임자인 이호형 동방매장문화재연구원장이 30일 유족과 취재진 앞에서 유해 매장형태 등을 설명하고 있다. 매장지인 서산시 갈산동 봉화산 교토호에서는 73년 전 한국전쟁 당시 우리 군·경에 의한 민간인 집단 학살 정황을 생생히 보여주는 유골 60여구와 유품 등이 발굴됐다. 2기 진상·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는 유해 수습을 앞두고 이날 발굴 현장을 공개했다. 연합뉴스/정찬욱기자

## 병원 찾다 숨지는 환자 잇따라...“시스템적 한계”

최근 치료가 가능한 병원을 찾다가 환자가 숨지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일각에선 시스템적인 한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0일 경기 용인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30분께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의 한 편의 1차로 도로에서 50대 A씨가 모는 차량이 후진 중에 70대 B씨를 덮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들은 신고 접수 10분 만에 B씨를 구제해 인근 대형병원 3곳에 이송 여부를 문의했으나 중환자 병상 부족으로 수용 불가 판정을 받았다. 이어 수원과 안산 등 8곳의 대형병원에 문의했으나 병상을 찾지 못했고

### 전문의부재 응급환자 초과 등 거절 의뢰계 “외상환자 치료 비일상적”

사고 발생 1시간 20분이 지나서야 의정부 지역의 병원에서 수용이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B씨는 사고 2시간 만인 오전 2시 30분께 구급차 안에서 심정지를 일으켰고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다. 앞서 지난 19일에는 대구에서 4층 높이 건물에서 떨어져 골절 등의 외상을 입은 한 10대 A양이 치료가능한 병원을 찾다가 사망했다. 당시 구급대는 종합병원과 대학병원 총 4곳에 문의했지만 치료 전문의

부재, 응급환자가 많다는 이유로 거절을 당했다. 그 중 경북대병원 권역외상센터도 있었지만 응급환자가 많아 수용이 불가능하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A양은 약 2시간 동안 병원을 전전하다가 B종합병원으로 가는 과정에서 심정지가 왔다. 구급대는 CPR 등을 실시하며 대구가톨릭대병원으로 환자를 옮겼지만 끝내 사망했다. 의뢰계 관계자는 “외상 외과가 일상적으로 잘 갖춰진 병원이 별로 없고, 있어도 소수이기 때문에 늘 바빠 응급환자마다 바로 투입될 수 없다”고 현실을 지적했다.

용인/ 유원수기자 youys@jeonmae.co.kr

## 정서적 아동학대 보육교사 자격 취소 '합력'

### 초등생에 성소수자 혐오 영상 시청 해당 어린이집 교사들이 헌법소원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교사가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해 처벌받으면 자격을 취소하는 헌법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는 이를 규정한 영유아보육법 48조1항3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의 견으로 25일 합헌 결정을 내렸다. 현재는 “어린이집 원장이나 교사에 의한 아동학대 범죄는 영유아의 신체·정서 발달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들의 자격을 취소해 보육 현장에서 배제할 필요가 크다”고 밝혔다. 또 “심판 대상 조항은 (법률의 적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임의적 규정으로 행정청이 재량으로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며 “그 제

한의 정도가 심판 대상 조항이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중대하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 청구인들은 대구 달서구 어린이집의 전직 부원장과 보육교사로, 2017년 6월 봉사활동을 나온 초등학생 18명에게 성소수자 혐오 내용이 담긴 영상을 보여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됐다. 법원은 두 사람이 학생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고 보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후 달서구청장은 2020년 9월 이들의 보육교사 자격을 취소했다. 청구인들은 법원의 명령이 없었는데도 자격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이들은 영유아보육법 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제청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2021년 8월 헌법소원을 냈다.

연합뉴스/황윤기기자

## 조카 직장 향의 방문했다가 살해 당해...50대 검거

자신에게 혐의한 상대방을 흥기를 휘둘러 살해한 50대 중국인이 붙잡혔다. 경기 안성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중국 국적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 21분께 안성시 일죽면 한 제조공장 기숙사에서 40대 B(중국 국적)씨에게 여러 차례 흥기

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일 B씨는 자기 조카인 20대 C씨로부터 “상사인 A씨가 괴롭힌다”는 얘기를 듣고 제조공장 기숙사에 있던 A씨를 찾아가 혐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 15분께 자수하겠다고 연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성/ 유원수기자 youys@jeonmae.co.kr

오늘 행복하고 내일이 기다려지는 서초

23 전국매일신문 창간 26주년을 축하합니다

대한민국 대표 문화 예술 도시 서초

서초 SEOCHO

동 정



전동키보드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
이병선 강원 속초시장은 31일 오전 8시 하우스토리 사거리에서 열리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동키보드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에 참석.



서천군의회제1차정례회본회의
김기용 충남 서천군수는 31일 오전 10시 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리는 제311회 서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 참석.



임업대학 입학식
박범인 충남 금산군수는 31일 오후 1시 30분 금산읍 청산회관에서 열리는 2023년 금산군 임업대학 입학식에 참석.



읍·면 순회 게이트볼대회
최재구 충남 예산군수는 31일 오전 9시 30분 신례원 게이트볼장에서 열리는 예산군 읍·면 순회 게이트볼대회에 참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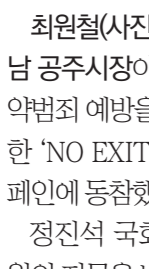


대중사무도담 제막 5주기 다례제
함영준 강원 고성군수는 31일 오전 10시 30분 양양군 낙산사에서 열리는 설악당 무산 대중사무도담 제막 및 5주기 다례제에 참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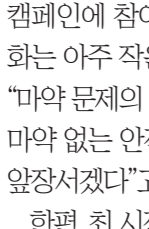


골프연습장 개장식
최승준 강원 정선군수는 31일 오후 2시 정선종합경기장 내 골프연습장에서 개최되는 정선골프연습장 개장식에 참석.

'NO EXIT' 캠페인 동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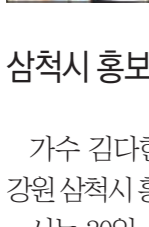
최원철(사진) 충남 공주시장이 마약범죄 예방을 위한 'NO EXIT' 캠페인에 동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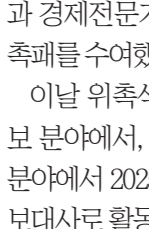
공주/유양준기자 yjyou@jeonmae.co.kr
한편, 최 시장은 다음 달에 주자로 공주시의회 윤구병 의장과 입달희 부의장을 추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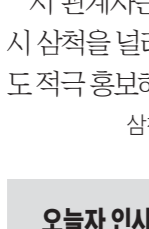
삼척시 홍보대사 김다현·고영우 위촉
가수 김다현과 경제전문가 고영우씨가 강원 삼척시 홍보대사로 위촉(사진)됐다.



가수 김다현과 경제전문가 고영우씨가 강원 삼척시 홍보대사로 위촉(사진)됐다.



이날 위촉식으로 가수 김다현은 관광홍보 분야에서, 경제전문가 고영우씨는 경제 분야에서 2025년 5월 29일까지 2년간 시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청정수소 에너지도 시 삼척을 널리 알리고, 다양한 시정 사업들도 적극 홍보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늘자 인사 및 부고는 홈페이지에 게재됩니다

하동세계차엑스포 관람객 100만명 돌파 '인기몰이'

개막 24일만에...100만 번째 입장객 이벤트 등 진행
하동스포츠파크·야생차박물관 일원 관광객 이어져



하동세계차엑스포 100만번째 입장객 이해경씨 가족.

2023하동세계차엑스포 관람객이 100만명을 돌파했다. 30일 조직위에 따르면 지난 27일 관람객 집계 결과, 엑스포장 방문객이 꾸준히 몰리면서 개막 24일만에 100만명을 넘어섰다.

관객들로 북적였다. 이날 조직위는 100만 번째 입장객 이벤트를 진행했다. 100만 번째 입장객은 엑스포 2행사장에 방문한 이해경씨로 서울 서초구에서 연휴를 맞아 가족들과 함께 엑스포를 즐기러 하동을 방문했다.



경기 이천 다사랑다문화센터는 다음 달 10일 한아름공원에서 학교폭력 피해 학생과 느린 학습 청소년 지원을 위한 '사랑의나눔바자회'를 개최한다.

이천 다사랑다문화센터 '사랑의나눔바자회' 내달 10일 개최
"학교폭력 피해 학생·느린 학습 청소년 지원"

경기 이천 다사랑다문화센터는 다음 달 10일 한아름공원에서 학교폭력 피해 학생과 느린 학습 청소년 지원을 위한 '사랑의나눔바자회'를 개최한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민·관 공동체의 협업 강화로 학업 이탈 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정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정선군의회, 임시회 폐회...조례안 5건 심의

강원 정선군의회(의장 전영기)는 30일 2차 본회의를 끝으로 9일 간 일정의 제289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강원 정선군의회는 30일 2차 본회의를 끝으로 9일 간 일정의 제289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날 위촉식으로 가수 김다현은 관광홍보 분야에서, 경제전문가 고영우씨는 경제 분야에서 2025년 5월 29일까지 2년간 시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된다.

이날 2차 회의에서는 ▲경기도체육회·장애인체육대회 D-100일 카운트다운 점등식을 가졌다.

황대호 경기도의원 "체육인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경기도체육회 혁신발전 TF' 회의 참석...도 체육회 이관 등 논의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수원3)은 최근 '경기도체육회 혁신발전 TF' 회의에 참석해 직장운동경기부·체육시설 위탁 운영 업무의 체육회 이관과 체육 현안사항에 대해 논의를 했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부위원장은 최근 '경기도체육회 혁신발전 TF' 회의에 참석해 직장운동경기부·체육시설 위탁 운영 업무의 체육회 이관 등 논의를 했다.



충남 보령시는 30일 제29회 충남 장애인체육대회 D-100일 카운트다운 점등식을 가졌다.

보령시, 충남 장애인체육대회 'D-100일' 점등식

충남 보령시는 30일 보령종합경기장에서 제29회 충남 장애인체육대회 D-100일 카운트다운 점등식을 가졌다.

충남 보령시는 30일 보령종합경기장에서 제29회 충남 장애인체육대회 D-100일 카운트다운 점등식을 가졌다.

초대 광주예술의전당장에 운영문 음악협 지부장 선임

광주시는 초대 광주예술의전당장에 운영문(새한국음악협회 광주광역시회장을 선임(사진)했다고 30일 밝혔다.



이합장단 지휘자, 광주동신중고등학교 음악교사 등 30년 동안 지역 문화예술 활동에 전념했다.

포토뉴스



하원 경기도의원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처우개선 토론회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하원 의원(국민의힘 이천2)은 최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광주시 해외시장개척단 시드니·멜버른 수출 상담
경기 광주시 소재 10개 기업으로 꾸려진 광주시 해외시장개척단이 호주 시드니와 멜버른에서 총 89건, 1286만6000달러 상당의 수출 상담을 진행했다고 30일 밝혔다.



보령시 제3기 청년 네트워크 발대식 개최
충남 보령시는 30일 시청 총회의실에서 김동일 시장과 청년네트워크 위원 등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기 청년네트워크 발대식을 개최했다.



안양시 청소년축제·청소년의 날 시상식 성료
경기 안양시는 최근 평촌중앙공원과 시청 4층 회의실에서 제25회 청소년축제와 청소년의 날 시상식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30일 밝혔다.



당진시 송악읍 한진2리 마을회관 개관식
충남 당진시 송악읍 한진2리 마을회는 30일 발전추진지역 지원사업비로 건립한 마을회관 개관식을 개최했다.



철원군체육회 제58회 강원도민체전 출정식
강원 철원군체육회(회장 임대수)는 최근 다음 달 3일부터 7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강원시에서 개최되는 제58회 강원도민체전 출정식을 갖고 선전을 다짐했다.



평택시 동사동 새마을부녀회 환경정화 활동
경기 평택시 동사동 새마을부녀회는 최근 '함께하는 클린평택' 실천을 위해 동사동 관내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

### 기후변화의 실존언어학 (中)

#### 강상헌의 하제별곡



문명비평가-우리글진흥원 고문

할 필요가 없다. 되레 그 변화를 지들의 밭줄로 존재의으로 삼지 않나?”

‘모욕’이라고 반박할 텐가. ‘경험 많은 우리 정치인들’이 인류의 공존(共存)을 위해 밭을 세워 일한다. 특히 바이든의 미국 등 ‘선진국’들은 그 사명을 다하게 위해, 정말 그런가.

슬프게도 웃기는 얘기가. 그들 또한 웃프지 않을까? 살아온 날과, 살아갈 날의 각각의 숫자의 의미는 논리적 추론의 대상이 아니다. 원초적(原初的) 사고의 본능이다. 기후를 걱정 않는 세대가 ‘기후걱정’ 정책을 논의하는 이 상황, 기후 관련 국제정치가 사보타주(兇業 태업) 수준의 불협화(不協和) 또는 헛심만 요란한 빈 수레가 되는 까닭이려니. 현실(국제)정치의 여러 사정 상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그 사정’이 실은 기성세대가 미래 세대의 몫을 난도질 또는 절도질 하는 내막이다. 직시(直視)하자면, 진즉 전쟁이라도 났어야 했다. 기성세대와 새싹세대 간의 진지한 논의는, 없다. 문제의 본질이다. 그런 사고(思考)의 구조에서 나오는 여러 이슈의 가지치기 또한 불가피하게 ‘남의 다리 굽는 듯’ 편정 피우는 수준 또는 격화소양(隔靴搔癢)의 블랙코미디를 넘지 못하는 것이다. 언론이나 (관련) 과학도 비슷한 한 통속일터. 언어(용어)가 증언한다.

기후변화(climate change)라는 말은 실은 이런 ‘한 통속 짓’을 호도(糊塗)하기 위한 언어의 기술적 변용(變容)이기 쉽다. 언어 즉 말이 제 목

숨을 과약하고 그 뜻을 담지 않는 것, 그 의도를 꿰뚫어 보는 것이 지성이다. 철학이라고도 하는. 기후가 변화하니 인간세상도 변화(적응)하라는 세뇌(洗腦)의 이미지다. 하나 더 있다. ‘지구가 따뜻해진다’는 온난화(溫暖化)다. 결론, 기후변화 지구온난화 따위는 사기의 도구언어다.

위기(危機 crisis) 비상(非常 emergency) 재앙/재난(災殃/災難 disaster catastrophe) 파국(破局 collapse) 종말(終末 end) 등의 빨간불과 사이렌 소리 내는 어휘들이 ‘변화’라는 대표언어에 가려졌다. 태평성대의 별유천지(別有天地)는 이 ‘변화’나 ‘온난화’와 같은 마스터베이션(自慰 自慰)의 언어와 함께 산다. 그 지구에서 살아야 할 아이들과 청소년들, 청년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치매(癡呆)나 아연인수(我田引水)다. 말은, 특히 먹고 사는, 살고 죽는 문제에 정직해야 한다. 접때(비가 엄청나게 왔다는) 뜻의 문자 석(昔)을 느끼는 마음(心, 心 心)은 흉수에 사람 등 아기는 것을 다 돌려 보낸 이들의 아픈 심정이 된다. 석별(惜別) 애석(哀惜)의 뉘이다. 애석한 석별이, 생존의 무너짐이 눈앞에서 벌어진다. 재난이 아닌 변화된다. 이제는 우주로 노아의 방주를 보내자고 한다. 方舟도 昔도 확대일로다. 재앙의 확대 재생산과 다가오는 미래, 거기서 살 청춘들의 억장 무너질 소리 듣는다.

청년들아, 응석 접고 본디를 보자. ‘어른’들의 저 패륜(悖倫)을 응서 말라. 타협하지 말라.

‘재앙’을 ‘변화’라고 사기 치는 저 패륜을, 어찌 하라?  
지구촌 곳곳에서 기후로 인한 재앙이 잇따른다. 빙하(氷河) 붕괴 등의 현장을 찾은 ‘관광’도 어느덧 자연스럽다. 유명한 정치가나 국제기구 인사들은 부지런히 논의한다. 무엇을? ‘논의’하는 척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논의하는 것이다. 이런 풍경들의 특징, 나이 많은 이들이 ‘주인공’이라는 점이다. 얼핏 자연스럽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기후변화의 결과는 지금도, 또 곧 닥칠 미래도 그렇지만 최소한 1세대 즉 30년 후쯤을 시발점으로 상정(想定)해야 옳다. 실성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한다.  
“청년들아, 기후문제 논의는 기성세대에게 맡기지 말라. 그들은 기후의 변화에 대해 걱정

### 지루성피부염, 환절기에 더욱 신경써야

#### 의학칼럼



#### 장혁

생기학의원 광주점 대표원장

레스와 음주 및 흡연, 외부의 자극 등으로 인해 증상이 발병되거나 악화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질환은 주로 두피, 얼굴, 겨드랑이, 앞가슴 부위 등 피지선이 발달한 부위에 가려움증과 다양한 크기 및 모양의 홍반성과 함께 병변 위에 각질이 나타난다. 초기에는 증상이 특정 부위에 발현되지만 악화되면 전신에 걸쳐 확장될 수 있고, 진물 및 두꺼운 딱지가 내려앉을 수 있다. 2차 피해로는 박테리아가 감염되어 악취가 날 수 있다.

환의학에서는 지루성피부염의 치료를 위해 환자의 체질과 증상에 맞는 치료를 적용하고 있다. 해당 질환은 피부질환이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신체 내부에 있기 때문에 치료를 위해 신체 내부의 면역력 활성화 및 피부 조직 재생 치료 등을 시행하고 있다.

환자에게 맞는 한약을 처방하여 신체 기혈 보충 및 면역력, 재생력을 회복하여 염증을 배출시킨다. 또한 약침, 침 치료를 상태에 맞게 적용하여 피부 면역체계를 활성화시키며, 뜸 치료를 통해 피부 진정, 보습, 영양 등을 공급해 준다. 위 치료를 통해 질환의 재발을 최소화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지루성피부염이 의심된다면 조기에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치료 시에는 신체 밸런스 및 면역력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므로 평소 시 충분한 숙면과 휴식 등 생활 관리를 해주는 것이 좋다.

일교차가 심한 가을이 찾아오면서 우리 피부는 자극받기 쉬워졌다. 피부는 날씨와 환경 변화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는 다양한 피부질환이 새롭게 나타나거나 기존의 증상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특히 지루성피부염은 환절기에 더욱 관리에 신경 써줘야 한다. 해당 질환은 치료시기를 놓쳐 고생하는 사례가 많다.

지루성피부염은 습진의 일종으로, 국내 인구 약 1~3%가 겪어본 경험이 있는 흔한 피부질환이다. 발생하는 원인은 열성 피지 현상으로, 이는 체내 열이 올바르게 순환되지 못하여 피부 온도와 수분 밸런스가 깨지게 되어 피지선 활동량이 증가하여 발생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과도한 스트

### 마약청정국으로 되돌아가기 위해서는

#### 독자투고

#### 이광호

강원 원주경찰서 경사

화가 마약 범죄 접촉 대상 연령대를 변화하게 만든 요인 중의 하나이다. 또한 SNS를 통한 거래는 익명으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마약상과 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와 거래를 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연령의 제한이 사라진 셈이 된다. 이러한 익명 거래 범죄를 검거하기 위해 강원도경찰청에서는 마약합동단속추진운영단(TF)을 결성하여 관련 부서들의 총력 대응으로 마약 범죄 조기 검거에 나설 계획이다.

마약은 시작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마약 범죄는 마약류 소지 그 자체로도 중하게 처벌되는 범죄이기 때문에 이점 또한 명심해야 할 것이다. ‘마약청정국’이라는 위상을 되찾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의 수사력도 중요하지만 마약은 한 사람의 인생, 한 가정 그리고 더 나아가 국가의 파멸을 불러오는 중대한 범죄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상기시켜 주는 것이 중요하다. 마약 범죄에 관해서는 ‘마약, 그것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는 고정관념으로 우리 국민 모두에게 인식되어 마약이 유입되고 있다. 이렇듯 유통 방식의 변

기존의 마약 범죄의 대상이 연예인과 같은 사회 유명인사로 국한되어 있었다면, 이제는 사회 유명인사 뿐만이 아닌 일반인들, 하물며 학생들 사이에서도 SNS나 인터넷 카페를 통해 손쉽게 구할 수 있게 되어 마약 청정국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 UN 기준에 따르면 마약 청정국 기준은 인구 10만명당 마약사범 20명인데, 우리나라는 2021년 인구 10만명당 마약 사범의 수가 31.2명으로 더 이상 마약 청정국으로 불릴 수 없게 되었다.

SNS 등 각종 매체가 발달됨에 따라 과거의 대면 방식 거래와는 상반되게, 비대면 방식의 거래로 마약이 유입되고 있다. 이렇듯 유통 방식의 변

### 주택용 소방시설 등 안전을 선물하자

#### 독자투고

#### 한선근

전남 고흥소방서 도양119안전센터 소방위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연평균) 전체 화재 건수에서 주택화재가 발생률은 20%인 반면 화재 사망자 비율은 60%가 주택에서 발생한다고 한다. 시간대별로는 심야시간인 0~6시에 사망자의 33%로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였다. 주택화재에서 인명피해가 많은 것은 심야시간에 발생했을 경우 화재를 초기에 인지하지 못해 유독가스를 흡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주택용 소방시설에는 불이 났을 때 감지하여 알려주는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초기소화에 쓰이는 소화기가 있다. 2012년 2월부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의 유예기간을 걸쳐 2017년 2월 4일까지 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주택(아파트·기숙사 제외) 등에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가 의무화됐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표적인 소방시설이다. 설치가 의무화된 만큼 아직 미설치된 가정에서는 반드시 설치해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이처럼 안전에 중요한 주택용 소방시설은 ‘고향사랑 기부제’를 통해 10만 원 정도를 기부하면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로 구성된 주택화재 안전꾸러미(3만 원 상당)를 선물로 선택할 수 있다.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향사랑 기부제’에 적극적인 참여와 더불어 주택화재 발생 시 안전을 책임지는 주택화재 안전꾸러미를 소중한 사람에게 선물하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

Opinion 전국매일신문은 독자 여러분의 투고, 사진, 민영 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소 (우 13309)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22(수진동, 예능빌딩) | 24부 편집장: 김민희, 24부 편집: 김민희, 24부 편집: 김민희, 24부 편집: 김민희

www.jeonmae.co.kr

발행: 편집: 원재민, 회장: 박종문, 사장: 박종필, 편집장: 이일영

대표전화: 1588-5762

정치부: 031-755-5600, 경제부: 031-752-0256, 사회부: 031-755-3484, 지방부: 031-755-5622, 광고문의: 070-4325-3858, FAX: 031-758-4360

전국취재본부: 서울본사: 02-749-0922, 인천본사: 032-751-1478, 대구본사: 053-471-1111, 광주본사: 062-361-0145, 경기북부본부: 031-967-1616, 경남본부: 055-761-7882, 세종본부: 044-865-8000, 강원본부: 033-251-4866, 충청본부: 041-668-3722, 충북본부: 043-255-8877, 제주본부: 064-723-1950

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22(수진동, 예능빌딩)

1997년 6월24일 창간(등록번호 가-43호(일간지))  
본사등록: 중국 요령일보사 조신문보  
구독료: 월 1만6,000원 / 1부 7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23 전국매일신문 창간 26주년을 축하합니다

ds

행복을 짓는 건설문화 창조

풍요로운 미래를 건설하기 위해 한결같은 마음으로 모든 고객분들과 함께 나아가며 믿음과 신뢰를 쌓아가는 기업이 되었습니다

23 전국매일신문 창간 26주년을 축하합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열린 적극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정선국유림관리소

(033) 560-5530~4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 아무리  
멀어도 무조건  
달려가는 편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

☆ 청년들에게  
의리있는 편  
청년을 위한 금융

작은 목소리도  
귀 기울이는 편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

# 내 편이 하나 생겼다

하나금융그룹이 당신의 편에서 하나의 힘이 될게요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증권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하나자산신탁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핀크

 하나금융그룹